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

찻잔에 담긴
오늘의 의미 표현 연구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동양화전공

김다운

찻잔에 담긴
오늘의 의미 표현 연구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성 희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동양화전공

김다운

김다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6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오늘의 의미를 찻잔을 통해 시각화 하고자 하는 회화 연작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오늘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주체적인 삶과 현실에의 태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작품을 제작하였다. 해당 연작은 201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학사 졸업 전시를 위한 작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통 동양화 기법의 회화로 제작되었다.

오늘이라는 단위는 시간을 뜻하는 다양한 단위들 중 하나이다. 현재을 뜻하는 단위만 해도 여럿인데, 그 중 오늘이라는 특정한 시간에 근거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생각한 바를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나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고, 이 감각을 통하여 사유할 수 있다.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순간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에서 시작되는 주체적인 나의 시간을 시각화하면서, 본질적이면서도 새로운 시간개념으로서 가능성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철학적, 회화적 관점에서 나의 작품이 가진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작품의 바탕이 되는 오늘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위해 현실과 사회에 통용되는 시간개념에 대하여 정의한 기존 학자들의 개념을 살펴본다. 작품의 주제인 오늘은 대다수 기존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일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새로이 오늘의 의미를 구별하고 삶으로까지 연장될 수 있는 관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오늘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찻잔을 통해 형

상화하고 나의 오늘을 시각화 하는 그 방식까지 아울러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Ⅰ.머리말', 'Ⅱ.오늘의 의미', 'Ⅲ.오늘의 의미를 담은 찻잔 표현', 'Ⅳ.조형적 특성'. 'Ⅴ.맺음말'로 구성 되어 있다.

Ⅰ장에서는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의 의미에 주목하게 된 연구 계기와 내용에 대한 바탕을 소개한다.

Ⅱ장은 오늘이라는 시간개념에 대하여 이해하는 장이다. 1절 '오늘의 개념'에서는 작품에서 사용된 오늘이라는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본다. 2절 '오늘의 의미'에서는 이를 통해 오늘의 시간개념이 시사할 수 있는 가치를 각각 정리하였다. 특히 1항 '주체적인 시간으로서의 오늘'에서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될 때 비롯되는 오늘의 의미에 대해, 2항 '가능성의 시간으로서의 오늘'에서는 1항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매일이 아닌 새로이 주어지는 오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Ⅲ장의 '오늘의 의미를 담은 찻잔 표현'은 위에서 알아본 오늘의 의미를 실질적인 작업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장이다. 1절 '주체적인 오늘을 담은 찻잔'에서는 먼저 찻잔이 오늘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매개체로써 어떻게 역할하는지 먼저 논하였다. 그리고 찻잔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나의 작품에서 '나'라는 존재와 그로 인한 경험, 일상적인 성찰에 기반하는 주체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성이 특히 드러난 작가와 작품을 들어 연구의 근거로 삼았다. 2절 '가능성의 오늘을 담은 찻잔'에서는 오늘의 잠재력에 대하여 이러한 의미가 해석되는 방식을 논하였다. 이것은

오늘에서 시작되는 시간 경험으로 하여금 일상, 그리고 생애시간에 끼치는 영향력까지 관여한다. 각 주제에 해당하는 작업 내용을 각각의 항의 이름으로서 하여 분류하였고, 실제로 작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서로 다른 다양한 내용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나의 세계관이 회화적으로 펼쳐질 때, 작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회화적으로 충실히 표현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다. 각각의 항은 연구 기간 동안의 세 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 전시 경험을 반영한다.

Ⅳ장에서는 작품에서 드러난 조형적 특징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다. 실제 작품의 조형미와 표현 방식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작업의 방향을 점검해본다. 이것은 1절의 '평면적 이미지', 2절의 '종적 집적(集積) 이미지와 병렬구도', 3절의 '선염'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작업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앞서 이야기 한 오늘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작품에서 실제로 저마다 어떻게 적용되고 드러났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Ⅴ장은 맺음말로 여기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큰 흐름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다양하게 접근된 연구 주제를 정리하고 그 이론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론적 분석과 표현적 고찰을 통하여 나의 작업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상과 삶을 관통하여 바라보는 시각으로써의 오늘의 가치를 짚어보고, 나의 작업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밀고 나아가고자 했다.

주요어 : 현대인, 시간개념, 일상, 오늘, 대기만성, 찻잔
학번 : 2019-25630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v
작품목록 ····· vii
참고도판 ····· ix

Ⅰ. 머리말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5
3. 연구 방법 ····· 9

Ⅱ. 오늘의 의미 ····· 14

1. 오늘의 개념 ····· 15
2. 오늘의 의미 ····· 22
   1) 주체적인 시간으로서의 오늘 ····· 24
   2) 가능성의 시간으로서의 오늘 ····· 32

Ⅲ. 오늘의 의미를 담은 찻잔 표현 ····· 39

1. 주체적인 오늘을 담은 찻잔 ····· 40

1) 자기 결정의 순간 ·····42
2) 자기 성찰의 계절 ·····53
2. 가능성의 오늘을 담은 찻잔 ·····67
1) 자기 발견의 실마리 ·····69
2) 자기 긍정의 일상 ·····77

Ⅳ. 조형적 특성 ·····91

1. 평면적 이미지 ·····93
2. 종적 집적(集積) 이미지와 병렬구도 ·····100
3. 선염 ·····105

Ⅴ. 맺음말 ·····116

참고문헌 ·····121
작 품 집 ·····126
Abstract ·····146

작 품 목 록

〔작품도판1〕〈담다 #2〉, 2012, 순지에 채색,
각 162.2x130.3cm, (총 2점).

〔작품도판2〕〈봄 옷자락에 여름 바람이 스칠 때 #1〉, 2020,
장지에 채색, 116.8x91.0cm.

〔작품도판3〕〈봄 옷자락에 여름 바람이 스칠 때 #2〉, 2020,
장지에 채색, 116.8x91.0cm.

〔작품도판4〕〈봄 옷자락에 여름 바람이 스칠 때 #3〉, 2020,
장지에 채색, 116.8x91.0cm.

〔작품도판5〕〈봄 옷자락에 여름 바람이 스칠 때 #4〉, 2020,
장지에 채색, 116.8x91.0cm.

〔작품도판6〕〈오늘 한낮의 햇볕은 마치 여름날 같아서 #1〉, 2021,
장지에 채색, 91.0x116.8cm.

〔작품도판7〕〈오늘 한낮의 햇볕은 마치 여름날 같아서 #2〉, 2021,
장지에 채색, 91.0x116.8cm.

〔작품도판8〕〈실마리 #1〉, 2015, 순지에 채색, 73x92cm.

〔작품도판9〕〈실마리 #2〉, 2015, 장지에 채색, 70×70cm.

〔작품도판10〕〈시선 끝의 실마리 #3〉, 2018, 장지에 채색,
72.7x60.6cm.

〔작품도판11〕 〈시선 끝의 실마리 #4〉, 2018, 장지에 채색,
72.7x60.6cm.

〔작품도판12〕〈함께 너와 오늘 하늘을 담고 #1-3〉, 2021,
장지에 채색, 37.6x28.8cm.

〔작품도판13〕〈실마리 #3〉, 2015, 장지에 채색, 70.0×70.0cm

〔작품도판14〕〈실마리 #4〉, 2015, 순지에 채색과 꼴라주, 35x47cm.

〔작품도판15〕〈담다 #1〉, 2012, 장지에 채색, 162.2x130.3cm

〔작품도판16〕〈담다 #3〉, 2012, 장지에 채색, 162.2x130.3cm

〔작품도판17〕〈Rhythm&Vibe #1-4〉, 2019, 장지에 채색, 각 53x45.5cm.

〔작품도판18〕〈Today〉, 2019, 장지에 채색, 30x90cm.

〔작품도판19〕〈시선 끝의 실마리 #1-2〉, 2018, 장지에 채색, 각 30x4cm.

〔작품도판20〕〈A Cup of Tea Garden #1-4〉, 2019, 순지에 채색, 70.0×70.0cm.

〔작품도판21〕〈오늘담다〉, 2019, 장지에 채색, 70x70cm.

참 고 도 판

〔참고도판1〕 샤르댕, 〈은 물잔〉 1768년경, 캔버스에 유채, 33x41cm, 루브르 박물관

〔참고도판2〕 샤르댕, 〈산딸기 바구니〉 18세기 경, 캔버스에 유채, 38x46cm, 개인소장

〔참고도판3〕장승업, 〈꽃〉부분, 제작연도미상, 수묵채색화, 124x34cm, 북한 조선미술박물관.

〔참고도판4〕장승업, 〈기명절지도〉부분, 1894, 수묵채색화, 195.6 × 431.8 cm 메트로폴리탄.

〔참고도판5〕장승업, 〈기명절지도〉부분, 1894, 수묵채색화, 195.6 × 431.8 cm 메트로폴리탄.

〔참고도판6〕 〔참고도판6〕 《오늘담다》, 갤러리 라메르 전시 전경.

〔참고도판7〕 공민왕, 〈위기도〉, 제작연도미상, 견본채색화, 137.2x65cm, 일본 시센시(泗川子) 소장.

〔참고도판8〕 공민왕, 〈위기도〉 부분, 제작연도미상, 견본채색화, 137.2x65cm, 일본 시센시(泗川子) 소장.

〔참고도판9〕 임천(林泉, 1908~1965), 〈수덕사벽화모사도〉, 1937, 수묵채색화, 117x204cm, 국립중앙박물관

〔참고도판10〕 〈사계〉, 2018, 장지에 채색, 각 22.0×27.3cm (총30점), 《오늘담다》(2019) 갤러리 라메르 전시 전경.

〔참고도판11〕 〈실마리 #2-3〉, 2015, 장지에 채색, 각 70×70cm, (총 2점), 《담다, 찻잔》 갤러리 탐(耽) 전시 전경.

〔참고도판12〕 상징적 '실마리' 소재 활용의 예시
〔참고도판13〕 경험적 일상 소재 활용의 예시
〔참고도판14〕〈A Cup of Oasis #1-3〉, 2021, 장지에 채색,
각 90.9×72.7cm, 《A Cup of Oasis》 희수갤러리
전시 전경.
〔참고도판15〕〈A Cup of Oasis #4-6〉, 2021, 장지에 채색,
각 90.9×72.7cm, 《A Cup of Oasis》 희수갤러리
전시 전경.
〔참고도판16〕 미상, 〈매죽취금도〉 세부, 12세기초 추정, 견본채색,
타이페이 고궁박물관.
〔참고도판17〕 휘종, 〈죽지이조도〉권 부분, 세로 31cm, 견본채색,
세로 31cm, 개인소장.
〔참고도판18〕 고개지, 〈낙신부도〉 권 부분, 12-13세기 모본,
견본채색, 세로 24cm, 프리어 미술관.
〔참고도판19〕 재스퍼 존스, 〈세 개의 깃발〉 1958년,
캔버스에 납화, 77.8×115.6×11.7cm, 휘트니
미술관.
〔참고도판20〕 이응록, 〈책가도〉, 1864-1871 추정, 지본채색,
150x380cm, 개인소장.
〔참고도판21〕 홍차의 포기크랙(Foggy Crack)
〔참고도판22〕〈오늘담다〉, 2019, 장지에 채색, 70x70cm,
선염 작업 과정.
〔참고도판23〕 선염 기법 활용의 예시

Ⅰ. 머리말

1. 연구 배경

요새 'n포세대'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삶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의식주로 대표되는 생활 수준의 지표는 어느새 목표[1]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그리고 그것을 갖추기 위한 무게감은 그 어느 시대보다 커다랗게 느껴진다. 얼마 전 발표된 정부의 2021년 예산안 중 청년 맞춤형 지원책의 이름이 '희망패키지[2]' 인것도, 미래를 짐작키 어렵다고 흔히 느끼는 우리네 삶을 체감케 한다. 당연히 청년층에 국한된 이야기 만은 아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방향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이후 더더욱이나 치열해지고 간절해졌다.[3] 그로 인하여 목표를 위해 하루를 일기예보 마냥 훤히 들여다보고, 알뜰하게 활용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계획성이 더욱 눈에 띄게

---

1) 시장 중심 사회에서는 야심 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이익 추구와 탐욕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서울:김영사, 2010), 29.

2) 김민재, 「더이상 ′N포세대′ 없다…정부, ′청년 희망패키지′ 추진」, 『노컷뉴스』, 2020.09.01.
https://www.nocutnews.co.kr/news/5404275

3)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에서 전염병이란 인구가 충분히 많고 밀집되어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성 질병(crowd disease)'라고도 한다. 이는 현대인들의 삶이 인구 밀집형 도시 사회에 기반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김진준 역, (서울:문학사상, 1998), 297.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미래를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시간 정도로 여기고, 다가오는 미래 역시 목표의 달성 지점이라는 막연한 시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Anatole France, 1844-1924) 역시 개개인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바쁜 현대 사회의 일면을 일찍이 묘사한 적 있고[4], 미국의 소설가 피츠제럴드(Francis Scott Key Fitzgerald, 1896-1940) 역시 현대인들의 성공에 대한 욕심과 공허한 목적 의식에 대하여 드러내었다.[5]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현대인의 이와 같은 목적의식과 조급함 역시 이해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일견 건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다.

목표를 위할수록 현 시점에 대한 불안감은 커진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소로우(H.D. Thoreau, 1817-1892)는 사람

---

4) 사람들은 집이 아무리 높아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끝없이 높이 올려 30층, 40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안에는 사무실, 가게, 은행 지점, 회사의 본사 사무실들이 층층이 겹쳐 있었다. 뿐만 아니라 땅 밑으로도 더욱 더 깊이 내려가 지하실과 터널을 만들었다. 거대 도시에서는 1,500만 명이 낮이고 밤이고 늘 켜 놓는 전등불 밑에서 일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빛도 도시를 둘러싼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를 꿰뚫지 못했다. 다만 공중을 가로지른 철다리 너머로 가끔 붉은 원반같이 생긴, 햇살이라곤 전혀 없는 태양이 새까만 하늘에 끼어 있는 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하늘에서는 그을음과 매연 때문에 생긴 비가 하염없이 내렸다.
아나톨 프랑스, 『펭귄의 섬』 김우영 역, (서울:다른우리, 2008), 393.

5) 개츠비는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앞에서 후퇴해 가는 그 녹색 불빛의 존재를, 그 광란의 미래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때 그것은 우리들 손에서 빠져 달아났다. 그러나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내일 더 빨리 달려서 양팔을 더 멀리까지 뻗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맑은 날 아침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가면서도 물결을 거슬러 노젓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김연희 역, (서울:하서출판사, 2002), 234.

들이 조용한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6] 곱씹어 깊이 생각할수록 목표는 점차 소중해지고, 지금 자신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점점 확신이 사라지는 이러한 현 세태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흔한 불안은 노자(老子, ?-?)의 '대기만성(大器晩成)'이라는 고사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흔히들 이야기 하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교훈은 삶에 있어서 목표 의식이 앞서는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긍정적으로만 해석 될 수 있는 지 의문 역시 들게 한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언젠가 도래할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목표 지점을 얼핏 확신 할 수 없는 현 상황의 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의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흔한 고사성어에서도 현 사회의 양면성을 발견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알 수 없는 나의 그릇의 크기와 완성 시점에 대한 의심, 즉 나의 재능과 노력의 정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현대인의 걱정과 상통하고 때때로는 그 자체이기도 하다. 막연한 기대감은 위로와 위안이 되기 보다는 불안함을 당기는 요소로써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기울여야 하는 오늘의 노력은 마땅히 당연한 것이 되고 내일에의 목표만이 남는다. 불확실한 미래만큼 자신을 채찍질 하고 오늘의 노력을 끊임 없이 종용한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목표를 위한 계획으로만 채우고 미래라는 목적 뒤쪽에 미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삶의 목적이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자체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이때엔 매일매일 섭식 하는 일마

---

6) 밀드레드 뉴먼(Mildred R. Newman, 1920-2001), 『나에게 이르는 길』 이영희 역 (서울:도서출판대성, 1992), 재인용, 3.

저 미래의 목표를 위해 연료를 넣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7] 특히 차나 커피와 같은 마실거리의 경우, 잠에서 빠르게 벗어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물로 치부되기 일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이 의미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8] 마실거리의 종류와 요리법, 장소나 상황 그리고 분위기, 함께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요소가 서로 다른 성격과 의미를 낳음은 물론이거니와,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선택하는 것 혹은 칼로리 때문에 홍차를 선택하는 것 이상의 당위성을 우리는 지금 스스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생존을 위해 매일 필수불가결하게 존재해야 하는 과정이나 일도 일차적인 의미 외의 다른 주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당연스레 행동하는 것에서 주변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는 오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주변 의미를 일컬어 주체적인 오늘에서 비롯될 수 있는 시간개념의 가능성이라 여기고, 마시는 행위로써의 찻잔을 소재로 하여 오늘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에 대해 환기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시간 개념에 대하여 다시금 생

---

7) 이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지각력"이란 감각과 느낌에 반응하는 능력이다. (...) 칸트는 이성이야말로 적어도 때로는,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이 우리 의지를 통치할 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에 내몰리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 두 가지 능력이 합쳐져 우리는 특별한 존재,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가 된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단지 식욕만을 느끼는 동물에서 벗어난다.
마이클 샌델, 위 책, 153.

8) 오늘날의 도시 생활은 템포가 아주 빨라져서 요리나 음식에 시간이나 머리를 쓸 여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 그러나 인간이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기 위해 먹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은 문자 그대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임어당, 『생활의 발견』, 류해인 역 (서울:하서출판사, 2001), 223.

각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결과 중심적인 현재의 만연한 시각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길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오늘을 괄목 할 만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의 연구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자세에 대해서는 2절에서 부연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은 숫자로 들여다 보자면 24시간 혹은 1440분으로 이야기 된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해야 하는 일과 행동의 가짓수를 나열해 보자면, 이 또한 어림짐작하여 꼽아 봐도 그 수가 열 손가락은 쉽게 넘어선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는 적지 않은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이 행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일 역시 끝 없이 많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 혹은 내일 모레와 같이 더 먼 미래의 시간까지 묶어서 계획을 세우는 일이 태반이다. 이와 같이 오늘이라는 시간대는 정신 없이 특히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기 쉽다. 특히 삶의 방식이 단순하지 않고 개개인에게 주목 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미래라는 목표를 위해서 오늘을 알차게 쓰고자 하는 계획이 앞서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절대 많지 않게 느껴지고 그저 흐르는 듯 금세 사라진다. 이러한 인식은 어느 새 개인적이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현대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풍경 아래 나 역시 한 명의 개인으로서는 물론 작가로서 역시 어떠한 그림을 왜 그려야 하는지 무엇 하나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작업에 대하여 심려 하게 되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 그리고 작품이라는 것은,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를 담고자 하는 행위이자 집결체 그 자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나의 생각을 단순히 그림에 담는 것을 넘어서 이 기저의 메시지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 역시 잠시 숨 돌릴 여유 없이는 힘들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투자한 회사의 주가를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승진을 위해서 영어 단어를 다시 들여다 보는 것 대신에 나의 작업과 의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의 영역이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무척이나 진심인 요즘의 세태에 있어서 작업에 대한 나의 태도는 꽤나 원론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곁들이는 근거의 내용 또한 고전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오히려 주변을 둘러볼 여유 없이 바쁜 사회적 분위기와 그것이 자신의 시간에 있어 상실처럼 느껴졌던 나의 경험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를, 그리고 작품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하여 연구할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것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사회를 들여다보는 방식이자, 전통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를 들여다보는 기준점을 세우고자 함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단순히 나의 감정과 생각을 쏟아내는 것을 넘어 현대 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담

는 계기로써 역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의 본질에 대하여 깨닫고 제작 과정을 되돌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연구의 과정 또한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나 또한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써 겪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 고민을 상쇄 할 방법으로써의 의미 부여가 오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과 오늘에 대하여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여 서로에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의식의 전환점으로 삼는 데에 화가로서의 나의 역할이 위치해 있다. 이에 부연하여 전시 《A Cup of Oasis (2021)》에서 다음과 같이 적은 적이 있다. 내가 임하는 삶의 시간 모두가 의미 있겠지만, 지금 당장 마주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하여 그 동안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거친 사막을 가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을 가르고 매일 발걸음을 찍어나갔습니다.
지나간 자리는 땅도 패이고 흘린 땀에 이슬도 맺혔어요.
달이 뜨고 발이 멈춘 곳에서 잠을 청했지요.
밤을 틈타 주변에서 작고 싱그러운 속삭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했고 지치지 않는 발의 힘도 그러했어요.
굳센 발부리에 보드랍게 흙도 일어나고
구슬 땀비에 주변도 촉촉해졌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시야를 밝히는 동안 열심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길에 어둠 끝자락이 닿았을 때
다시 나아가기 위한 휴식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달빛에 기대어 주변에서 오밀조밀 새싹이 피었어요.

그리고 깨어난 그는 자신의 자취가 어떤 모양이 되었는지
미처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해가 밝았고 그의 눈은 벌써 앞을 향했거든요.

어제의 걸음에 이어 새로운 발걸음을 만들어 나갑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공기가 차차 더워지더라도,
계속 힘을 냅니다.[9)]

단순히 찰나와 같이 혹은 언제나 돌아오는 반복되는 시간으로써 오늘을 바라 보는 것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매일의 발걸음을 떼는 것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자신이 발 디디고 있는 땅을 보지 못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오늘에 대하여 새삼 인식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오늘이라는 창을 통하여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주체적인 관점을 제안하고자 함은 물론 오늘이라는 시간은 오롯히 내게 주어진 시공간이라는 생각을 함의한다. 오늘이라는 시간개념을 통하여 현대인의 삶을 들여다 보고자 하는 이 연구는 우리에게 미래라는 목표에 흔히 매몰되고야 마는 현실을 다시 들여다 보고자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것은 오늘이 목표를 위한 계획 뿐만이 아닌 내가 자의적으로 행

9) 작가노트, 2021.03.17.

동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담긴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나누고자 함이다. 오늘은 나의 행적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한 얼마 간의 시간이고, 또한 예상치 못했던 일들 또한 일어날 수 있는 탄력적인 시간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바로 이 계획 밖의 일들에 오늘을 가장 오늘 답게 만드는 가능성이 있다. 해야 할 일들과 세워 둔 계획에 급급하기만 하는 시간이라기에 오늘이 가진 변화의 가능성이 의미하는 바는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빠르게 흐르는 삶의 계획과 수행을 위한 시간 속 오늘이라는 시간대는 계절의 변화도 나의 모습도 감각 가능한 시간이자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또 동시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근간이 위치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행보에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찻잔을 소재로 하는 오늘의 의미 표현 연구에 대해서는 2012년 서울대학교 학사 졸업 전시 준비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연구되어 온 나의 작업 주제이다. 이 연구의 주제인 오늘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단위가 가지는 범위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 해야 한다. 이것은 현대인의 시간개념에 대하여 일상이라는 범주가 아닌 오늘에 집중한 이유이자 이번 연구 방법에 대한 것이다. 즉 오늘이라는 단위로 이번 연구의 시간개념을 한정 지음으로써 자칫 광범위할 수 있는 연구 범위를 특정하는 것과 동시에, 작품 주제의 의미 파악이라는 관점에서도 분석과 정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초점에 맞추어 연구하기 위하여 나는 이제까지의 작업과 작가노트는 물론이고 연구 기간 중 이루어진 세 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 전시 경험을 선정하여 종합하고 분석한다.[10] 그리고 현대인들의 시간개념과 그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조망함과 더불어 동시대 사람으로서 체험, 그리고 작가노트와 작품이라는 작업 결과물을 이 연구에 자연스럽게 녹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오늘의 의미를 담은 찻잔 표현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나의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기존의 학술논고와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반영하여 작업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사회 현상과 시사 관련 부분에서는 여러 신문사의 기사를 참고하여 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Ⅰ장 1절에서는 연구의 계기와 연구 주제에 주목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힌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도 전통기법을 사용하는 화가로써도 괄목 할 만한 부분이다. 거의 모든 방면에서 시장 원리의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하다. 그리고 한국미술은 물론 세계적인 미술의 흐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가속화 되고 도시화 된 성격을 현대 사회의 대표적 특성으로 바라보고 기준으로 삼아 연구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2절에서는 1절에서 정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삼아, 현대인이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에게 그 자신의 소신과 태도에 대해 알

10)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요 개인전은 다음과 같다.
《A Cup of Oasis(2021.3.17.-4.6)》, 희수갤러리, 제 3회 개인전
《오늘담다(2019.12.25-31)》, 갤러리 라메르, 제 2회 개인전
《담다, 찻잔(2019.1.2.-3.4)》, 갤러리 탐, 제 1회 개인전

아야 하는 필요성과 또 중요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것은 작품에 있어서 감상자와 소통에 대한 고민을 전제 하는 것이며 나 자신에게 있어서 또한 점검과 객관화의 의미를 갖는다. 3절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하여 밝힌다.

Ⅱ장은 본론의 시작으로 오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것은 오늘의 개념을 분석하고 주된 의미인 주체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부합하는 근거를 찾고 설명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함은 물론 화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1절은 시간개념의 등장과 적용을 통하여 오늘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드러내고 현대 사회에서 오늘이 어떻게 인식 되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역할하는지, 그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는 부분이다. 이어서 2절에서는 내가 이와 같이 인식한 방식에 대하여 주체성과 가능성이 어떻게 오늘의 개념으로 연결되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한다. 이 두가지 의미는 나의 작품의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이후 실재적인 작업과 구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위에서 알아본 주체성과 가능성의 관점에서 오늘의 의미가 찻잔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구체화 되는 부분에 대하여 연구한다. 1절 '주체적인 오늘을 담은 찻잔 표현'에서는 오늘의 주체성을 자기 결정의 순간과 자기 성찰의 계절 이 두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접근한다. 이것은 오늘의 의미과 관련하여 내가 고민을 거듭하는 부분이자, 각각 작품에 있어 내용이 사유 되는 방식을 이야기 한다. 1항에서는 자기 결정성이 오늘과 자신의 지금 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을, 2항에서는 경험적인 오늘의 성찰적 의미와 계절이라는 소재를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각 항목에서는 기존 작가들의 작

품과 기록 자료를 함께 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 2절 '가능성의 오늘을 담은 찻잔 표현'에서는 오늘의 가능성을 자기 발견의 실마리와 자기 긍정의 일상으로 각각의 항으로 나누어 구체화 하였다. 1항 자기 발견의 실마리에서는 찻잔과 차를 소재로 삼은 이유와 나의 경험을 결합하여 작품의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2항에서는 일상의 긍정을 포함 할 수 있는 오늘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과정과 작업관에 끼친 영향력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것은 위의 1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을 확장한 것이자, 나의 작업 그리고 전시 경험을 활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Ⅳ장은 조형적 특성과 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오늘의 의미 표현 방법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작에 있어서 주로 사용한 화면구성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용된 기법에 대하여 소개한다. 작업의 시기별로 각 조형언어가 활용되는 방식에 대하여는 작품 소개를 통해 짚어보기로 한다.

Ⅴ장은 결론 부분으로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며 작업의 결론을 얻고자 하였다. 이것은 향후 작업에 대해 이제까지의 작업을 통하여 반성하고 점검하고자 함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알게 할 것이다.

뒤에서는 이에 이어 연구 주제로 삼은 오늘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 집중하게 된 계기는 내일을 살아 갈 힘을 깨닫는 것은 오늘 뿐만 아니라 대개 인생으로 일컬어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과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 Ⅱ장 '**오늘의 의미**'에서는 나의 연구와 목적에 소재로써 오늘에 대하여 논하였다.

또한 나의 작품에서 드러난 오늘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오늘이라는 시간개념이 역사적으로 연구되어 온 자취와 실례에 더불어, 현대인에게 유의미한 시간개념으로써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나의 의견을 담았다. 여기서의 의미[11] 라는 것은 오늘이 나타내는 뜻과 가치를 모두 함양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1절 '**오늘의 개념**'에서는 먼저 오늘이 하나의 시간 단위로써 다른 시간개념의 다양한 단위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기존의 연구와 사료를 바탕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2절 '**오늘의 의미**'에서 가치적 의미, 즉 현대 사회에서 오늘이라는 시간개념이 시사할 수 있는 유의미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 연구의 목적인 오늘의 시간개념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함은 물론 또 현대인들의 현실과 일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 알고자 함이다.

---

11) 여기서 사용된 '의미'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말이나 글, 행위나 현상의 뜻'은 물론이거니와 '가치'라는 뜻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특히 활용에 유의하여 1절에서는 오늘의 뜻을 밝히는데, 2절에서는 오늘의 가치적 유의미를 밝히는데 집중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문맥과 정황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의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3.1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9D%98%EB%AF%B8#none

Ⅱ. 오늘의 의미

일찍이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는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내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 내게 물어보고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12]고 했다. 이와 같이 오래 전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게 있어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은 시간에 관련하여 기존 학자들의 연구가 수학적 접근만이 아닌 철학적 의미로써의 접근이 지속하여 이루어진 까닭을 알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다시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모두에게 공평히 주어진 것으로 바라보거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원리에 순응하기 위하여 발산과 수렴, 분산과 집합을 거듭하는 작용[13]의 과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일차적이다. 이것은 실제 현대인들의 생활에서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거니와 현 시대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실질적인 현대인들의 삶, 즉 생애 시간(life time)에 대입하고 해석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요한 방향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확립된 시간개념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기억과 예측을 동원하여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또 구분하는 일련의 과정 모두가 시간 그 자체로 여겨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비

12) 이창우, 『시간은 흐르는가』(서울:생각나눔, 2020), 28, 재인용.
13) 이창우, 위 책, 27.

롯하여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금 풀이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 가는 생활 양식이자 나를 둘러싼 공간을 의식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기존의 시간개념을 바탕으로 나는 '오늘'을 특히 우리의 인식 속 시간으로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기존 학자들의 연구에 근거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시간 단위 중 오늘을 가장 대표격인 현실로 바라보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삶의 방식까지 조망하고자 함이다. 이것은 다양한 단위로 대표되는 시간이 마치 분절에 목적을 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연속된 매 순간순간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오늘은 어느 한 날짜와 그 다음의 날짜가 바뀌기 이전, 그 사이에 주어진 시간 단위이다. 하루하루의 삶이란 대개 일상을 대변할 수 있지만 오늘이라는 시간개념은 흥미롭게도 일상 그 자체는 아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연구가 일상을 통하여 현대인의 시간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해보자면, 오늘을 통한 주체적인 시간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이번 연구가 시사할 수 있는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오늘을 통한 이러한 시간개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당연하지만 그 동안 지나치기 쉬웠던 가치적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계기로써 역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오늘의 개념

오늘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적으로 시간[14]은 '어떤 시각과 어떤 시각의 사이'나 '틈', 혹은 여느 '때의 흐름'을 뜻한다. 흥미롭게도 얼핏 단순 명료한 이 정의와 별개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 우리의 생활에 역할하는 방식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시간개념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낮과 밤을 구분 할 필요를 느끼고, 해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시간을 관리하여 더더욱 의식적으로 역할하고자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고도로 발달된 시계 장치의 등장은 사회적으로 일찍이 시간을 알고 구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가늠 할 수 있게 할뿐더러 또한 사회가 기술적으로 안정되고 또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근간을 파악하게 한다. 일례로 최근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서 조선시대 초기의 시계 장치 유물 일부가 발굴되었다. 자동 물시계의 가동 장치 하나인 주전(籌箭)과 천문시계인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의 부품이 바로 그것이다.[15] 이와 같은 유물이나 과거의 기록을 통하여 도시의 사람들이 일찍이 시간의식에 대한 필요를 이미 인식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시간이라는 무형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저울질하기 위한 시계 장치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양한 종류와 방식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16] 그러나 특히 현대 사회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간의 본질

---

14) "시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4.01.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8B%9C%EA%B0%84

15) 김태언, 「금속활자, 자동물시계 부품… 땅속서 나온 '조선의 과학'」, 『동아일보』, 2021.06.3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30/107708075/1

16) 시계를 만들고자 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와 정밀성을 추구해 온 과학에 의해 추를 이용한 시계장치, 태엽시계, 용수철을 이용한 기계식 시계, 진자식 시계 등과 같은 다양하고 발전된 형태의 시계장치들이 나타

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출현한 시간 측정 도구는 우리의 시간 감각을 점차 자연에서 벗어난 훈련의 영역으로 만들었으며 특히나 도시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형화되고 사회화된 것, 사회적 제도에 의한 객관적인 형태의 것으로 만들었다.[17] 이러한 시간 의식은 가속화 된 근대적인 사회의 관점에서 특히 구분 할 수 있다.

인간의 시간은 객관적인 물리적 시간과 주관적인 심리적 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18] 시간을 하나의 덩어리로 당연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 여느 다른 단위로 구별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에 대해 앎을 의미하지만, 주관적 시간에 대한 의식적 활용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은 시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객관적 시간을 배재하고 내재적 시간에 집중했다.[19] 이것은 특히 현대 사회에 이르러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와 달리 예전처럼 사람들의 삶과 일에 확고한 질서의 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20]을 부연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시간개념은 수학적인 분절 기준으로써의 역할이 아닌 스스로 정의 내리고 인식해야 하는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물리적인 시간개념에

나게 되고, 20세기에 이르러 하루에 오차가 1초의 수천분의 1 이내로까지 줄어든 자유진자시계, 3만년에 1초의 오차를 갖는 원자시계가 발명되기에 이르기까지, 점차 시계는 보다 정확한 것이 되었다.
방지영, 「사진매체를 활용한 시간성 표현 연구」, 2020, 24.

17) 방지영, 위 논문, 25.

18) 김희수, 「원근법을 이용한 시간과 공간의 형상들」, 2005, 3.

19) 원형준, 「시간의식에 대한 철학적 고찰」, 2010, 24.

20) 중세 사람들은 무엇보다 연도와 날짜와 밤 시간의 질서에 따라, 기독교의 달력과 일요일들, 경축일들을 따라 움직였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상당부분 자유로웠고 미리 정해진 질서가 모든 이에게 통용되었다.
프랑크 베르츠바흐,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정지인 역 (서울:불광출판사, 2016), 235. 재인용.

매몰되어 버린 현대인들의 현주소를 되돌아 보게 한다. 이러한 일례는 주변에 노출된 광고 문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개개인의 삶의 방식만큼이나 다채로운 종류의 광고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광고를 길목마다 지나치고,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그 양상이 더욱이나 과열되고 있는 광고는 생활 속에서 사각지대 없이 계속 눈에 보이고 연이어진다. 이렇게 흔히 널린 광고마다 심심치 않게 보이는 문구가 있다. '단조로운 일상에 필요한', '팍팍한 매일을 탈출하기 위해' 등의 미사여구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삶에 대한 힘의 부침을 일반화하고 이용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흔히 접하는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메세지가 시각화된다.[21] 목표 지점에 대한 회의감과 오늘에 대한 불안이 생길 때마다 이러한 메시지는 현대인들의 약해진 마음의 틈을 파고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현대시대에 만연한 결과 중심적인 양상 속에서 현재 자신이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였는지 알 수 없는 현대인의 불안 심리가 애꿎은 시간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것이 마치 한정된 재화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불안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되었고 또 습관화 되었다. 이런 불안 심리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때는 바로 미래의 목표로 인한 불안일 것이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대부분 이 지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연관되는 때가 흔하다. 새마을 운동의 캐치프라이즈로 유명한 '잘 살

21) (광고는) 끊임없이 실천 속에 간섭하고 염원의 한가운데에 끼어들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언어·문학과 사회적 상상에 침투하고 있지 않은가? 앙리 르페브르, 위 책, 126.

아보세'로 대표되는 현대인의 방향성은 현재보다 내일의 목표가 더 우선인, 미래적이고 결과 중심적 시각인 것이다.[22]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과 불안은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아래 41장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도에 대하여 옛 글을 들어 설명하는데, 그 중 '대기만성(大器晚成)'이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다.

> 크게 네모난 것은 모서리가 없으며,
> 큰 그릇은 오랫동안 이겨내서 이루어진다.
> 큰 음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 큰 그림은 형태가 없는 것이다.[23]

대기만성이란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24]는 말이지만,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25]는 뜻으로 주로 풀이되곤 한다. 흥미로운 점은 만성(晚成)이란 구절은 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로,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 강하다.[26] 이를 들어 "큰 그릇은 늦어 이루어지기 어렵다"[27]고 해석하는 경우도

---

22) 작가노트, 2021.03.17.
23) 大方無隅, 大器晚成, 大音希聲, 大象無形.
김정봉, 『노자의 노덕경』(장수: 내일을여는책, 2018), 439.
24) 노자, 『노자 노덕경과 왕필의 주』, 김학목 역(서울: 홍익출판사, 2012), 187.
25) "대기만성",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3.08.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B%8C%80%EA%B8%B0%EB%A7%8C%EC%84%B1
26)"대기만성", 두산백과사전, 검색일 2021.03.08.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0942&docId=1168361&categoryId=32972

있는 것이다. 실제 나의 경험으로도 대기만성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순수한 격려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꼭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부담감과,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싹 트는 때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 때의 불안은 무엇보다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과 우울감이다. 이것은 회의감(懷疑感)이자 부채가 되어 나에게 주어진 오늘, 즉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사고의 전개는 무척이나 흔한 의식의 흐름이고 삶에 대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28],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안이나 부담이 가중되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안은 흔히 과거에 이은 현재, 그리고 그에 이은 미래, 즉 하나의 선으로 인식하는 물리적 시간개념에 기댈 때 드러나는 실재적인 한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많은 현대인에게 안타깝게도 더 이상 별 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에서 주관적인 시간개념의 해석의 필요를 더더욱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 날에 새로이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은 단순히 어제 세워둔 계획을 실행하는 시간만은 아니다. 오늘은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공간[29]이자 내가 감각할 수

---

27) 임주완, 『노자 신주석서』(서울: 지식공감, 2021), 244.

28) 그 누구도 우울감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것은 모든 이의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가이다. 두려움처럼 우울감 역시 적절한 형식을 갖춘다면 생산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 언젠가 라스 폰 트리에(Lars Von Trier, 1956-) 감독은 영화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말한 적 있다.
프랑크 베르츠바흐, 위 책, 159.

29) 양승국은 그의 저서에서 시간을 공간화 하는 것은 존재론적 개념의

있는 순간이다. 사전적으로 오늘[30]은 지금 지나고 있는 시대를 뜻한다. 바로 오늘은 지금 여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어제와 내일과는 그 무엇보다도 다른 의미로 구별되는 것이다. 오늘은 이러한 성격으로서 지금 오늘에 실재하는 나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현실을 대표할 수 있다. 마치 시간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눈 맞추어 마주하고 발 맞추어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쉰(魯迅, 1881-1936)의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똑바로 쳐다보며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를 외면하지 않는다"[31]는 말과 상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은 다소 과격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를 충분히 환기시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이라는 시간은 대체로 그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대하기 어렵게 여긴다. 이를 직시하여 정확히 인식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직시하는 일 그리고 다른 시간개념 사이에서 오늘을 구별하는 일은, 외부에 있던 시간의 주체를 나에게 옮겨오는 용기 있는 일이다.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치는 시간이 아닌, 오늘의 나를 거쳐 흐르는 시간에 대한 깨어 있는 의식이야말로 오늘에서 비롯하는 용기를 낼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현실을 의미하는 다양한 시간 단위들 중에서도

반영이라고 하였다.
양승국, 『일상성의 미학에 이르는 길』(서울:박이정출판사, 2019), 86-90.

30) "오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2.25. 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98%A4%EB%8A%98

31) 위지안,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이현아 역 (일산:위즈덤하우스, 2000), 290, 재인용.

특히 구별하여 논한다. 즉, 오늘이란 현실 그리고 삶으로 대표되는 긴 시간을 직시할 수 있는 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을 통해 '나'에 대하여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은 감상자가 어떠한 하나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의식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오늘이라는 단위로 하여금 우리의 시간을 재인식 하고 나면 우리가 급급하던 것들에 대해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바로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로이 주어지는 오늘에서 저마다 역할 할 수 있는 여지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찾아야만 하겠다.

2.오늘의 의미

이 절 '**오늘의 의미**'에서는 앞서 알아본 오늘의 특징을 성격적으로 구체화 하고자 하였다. 내가 오늘에서 꼽은 가장 대표적인 의미 두 가지를 통하여 그 가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대인의 삶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시간성에 대한 탐구이자 현대 사회에 만연한 풍조를 환기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나'라는 현대인에게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한 명의 화가로서 나에게 작업의 목적 또한 점검하고 새로이 자리매김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절 '**주체적인 시간으로서의 오늘**'에서는 '나'의 시간으로서 오늘의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집중하여 그 유의미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체성의 의미는 오늘을 대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의미 역시 나로부터,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하고 싶다. 나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오늘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2항 '**가능성의 시간으로서의 오늘**'에서는 하루하루 새롭게 되풀이 되는 오늘, 즉 일상 경험으로서의 오늘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헝가리의 미술사학자 아르놀트 하우저(Arnold Hauser, 1892-1978)는 인생의 의미와 인간 조건 및 현존의 가치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자 내용이라고 했다.[32] 나는 이와 같이 오늘의 가치를 찾는 것을 나의 작업의 큰 목적이자 내용으로 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으로써도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오늘을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시작된 나에 대한 의식이 자기 표현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 나를 표현하고자 함과 진솔한 나를 찾고자 하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33] 그리고 이렇게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던 자아의 본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일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여겨지는 일이기도 하다.[34] 이것이야말로 오늘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극치의 단계인 것이다.

---

32) 안성하, 「일상이미지의 재현을 통한 兩價感 표출에 관한 연구」, 2003, ⅰ, 재인용.

33) 톨스토이는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써내려간 거의 모든 것 안에서, 나를 이끈 것은 서로 연결된 생각들을 엮어서 자기표현을 완수해야 할 필요였다"고 했다.
프랑크 마르텔라, 위 책, 193.

34) "자아실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3.05.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9E%90%EC%95%84+%EC%8B%A4%ED%98%84

1) 주체적인 시간으로서의 오늘

일견 비슷해보이는 '하루[35]'와 '오늘'은 둘 다 시간을 의미하는 단위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이 둘은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의미적으로 가장 구별 되는 지점은 현 시대에 대한 인식이 내포되어 있느냐 혹은 없느냐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새로 시작되는 오늘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어제 겪은 오늘과 별 다를 것 없이 대한다. 이제까지와 같이 나에게 마땅히 주어진 시간이고, 밀린 계획과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긴다. 흔히 '나'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과거에 이룬 것을 이야기 하거나 미래의 목표를 언급하는 때가 많다. 오늘로 대표되는 현재라는 시간개념에 대해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성적으로 대하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오늘의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고민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미래적 목표나 이전의 성과에 대해 먼저 이야기 한다. 어려서부터 흔히 써오던 방학 계획서나 장래희망처럼 목표를 생각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일까, 지금 하는 일들이 미래를 위해 노력한 시간 쯤으로 따라 붙는 일이 흔하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신기하게도 현재가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여 '나'를 설명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나 자신'을 설명 할 때 '오늘의 나'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현재 몰두하고 있는 목표나 이루고자 하는 성과 없이는 마치 사회에서 겉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는 자

35) '하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4.14.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99495&searchKeywordTo=3

의적으로 활동하고 감각 가능한 유일한 시간대인 오늘이 목표를 위해 소비되는 것이 불편하다.[36] 위에서 오늘이 가진 특징 중 하나인 현재성은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에 실재하는 성질을 가진 시간대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재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내가 가진 고유한 성질 또한 뜻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자주적인 성질이라는 뜻의 주체성[37]과도 상통한다. 그렇기에 정리해보자면, 오늘은 자신을 가장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생생한 현실의 순간이며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기점도 될 수 있는 때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3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는 오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다른 의미보다도 가장 먼저 주체성을 우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은 여러 시간개념 중 생각과 행동이 가장 가까운 시간이다. 강영안은 저서에서 새로운 것을 알거나 경험하고자 하는 호기심, 기존의 관념이나 질서와 배치되는 행동이나 사고 양식의 추구나 표현 등을 통해 삶에 숨통을 터 주고 기존의 질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할 수 있도록 유도된다고 했다.[39] 이것은 오늘 '나'에서 비롯된 경험과 의식이 궁극적으로 삶이라는 생애 시간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당장 생각한 것을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일들엔 무엇이 있나

---

36) 작가노트, 2021.03.17.
37) "주체성",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3.08.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A3%BC%EC%B2%B4%EC%84%B1
38) 윌리엄 버로스는 『네이키드 런치』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정의로워질 수 없으면 자의적이 돼라."라고 했다.
프랑크 마르텔라, 『무의미한 날들을 위한 철학』, 성원 역(서울: 어크로스, 2021), 페이지 없음, 재인용.
39) 강영안, 『일상의 철학』(서울:세창출판사, 2018).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보다 우리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뒤편으로 미루고, 계획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당장의 생존에 영향이 없으면서도 설정해둔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현재의 나를 위하는 일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인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 그리고 이에 비롯한 태도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Leo Tolstly, 1828-1910)가 "우리는 다른 때, 다른 곳에서 더 큰 축복을 얻게 되리라 기대하며 현재의 기쁨을 무시하고는 한다"[40]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의 '나'는 스스로의 시간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는 짧게는 오늘, 길게는 평생의, 나 자신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결정권자이자 무엇하나 덜거나 더할 것 없이 현재 상태를 대변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역할에 쫓겨 오늘에서 내리는 결정 또한 오롯히 나를 위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바쁨 그리고 무력감은 어떤 맥락에서는 안일하기도 하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여타 다른 시간개념보다 우리가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을 특정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이 특징적인 시간대는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목표에 밀려 여상(如常)하게 대해지고 아무 감흥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때로 전락하고야 만 것이다. 이러한 무력감에 대하여 시인 심보선 또한 〈오늘 나는〉에서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이것은 온전히 목적 지향적인 현대인들의 고민을 여실히 오늘에 비추어 나타내고 있다.

---

40) 톨스토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이상원 역, (서울:조화로운 삶, 2007), 130

오늘 나는 흔들리는 깃털처럼 목적이 없다
오늘 나는 이미 사라진 것들 뒤에 숨어 있다
(...)
오늘 나는 달력 위에 미래라는 구멍을 낸다
다음 주의 욕망
다음 달의 무(無)[41]

현대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은 그 여느 때보다 복잡하며 다원적이다. 그리고 기저에 깔린 개인의 욕망과 만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관조적인 입장이 팽배하다.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하고, 매일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만 같이 불안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불안감에 대하여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1991)는 현대인에 대해 말하길 "서로 상반되고 대립되고 서로를 함축하면서 만족과 '만족' 상태에 대한 강박적 추구와 불만족, 그리고 불안이 한데 뒤엉켜 있다"[42]고 했다. 이것은 삶에서의 불분명한 목표에 매몰되는 현대 사회와 그것을 위해 내달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상한다. 그리고 오늘에 대해 논하기 위하여 주체성이라는 특징에 집중해야 한다고 여기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 있다.

오늘을 삶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재조명 하고자 함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의 일

41) 심보선, 〈오늘 나는〉, 『슬픔이 없는 십오 초』(서울:문학과 지성사, 2008), 16-17.
42) 앙리 르페브르, 위 책, 170.

상 개념을 통해서도 포착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삶에 있어서 일상성이란 현존재가 타인에 의해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43] 얼핏 우울하게 느껴지는 문장이지만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상태 역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삶에 대하여 주체적인 상태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오늘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율적인 행동과 사고가 가능한 오늘이라는 시간대는, 현재에 이어 점진될 미래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신준모는 저서에서 일상의 하루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고 했는데[44], 이 역시 오늘에서 시작되는 주체적인 의식 태도가 삶으로서 선적 연장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는 것은 물론 이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이라는 시간개념이 뜻하는 바는 단순히 생애 시간의 한 점이나 단위로 국한 할 수 없다. 때문에 나에게 오늘에서 비롯한 일상은 탈출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대상 역시 아니다. 오늘은 본연의 나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식의 시작이자 '나' 자체를 의미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로 일컬어지는 목표 본위의 경직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오늘로 대표될 수 있는 열린 의식일 수

---

43) 일상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고찰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 일상성(dailiness)을 "현존재가 우선 대개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현재에 존재하는 인간들(현존재)이 자신에게 주어진 나날들 속에서 '우선 대개'의 방식으로 '실존하는 양식을 일컫는다. 여기서 '우선 대개'는 현존재가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데, 평범한 일상성으로 존재하는 인간인 현존재가 주위의 사물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자혜, 강승묵, 「밥과 커피, 영화…, 반복되는 일상의 시성」, 『영상아포리아』(2019), 49.

44) 우정이, 「일상에 대한 관조 : 본인 작품 중심으로」, 2020, 1, 재인용.

있다는 것이다.[45]

자율적인 행동과 사고가 가능한 오늘의 주체적인 성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에 대해 인식함은 곧 자신의 시간에 대한 탐구를 뜻할 수 있다. 나는 오늘에 충실함을 시작으로 나로부터 시작해 삶의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까지 주체성을 확장할 수 있다. 윌리엄 허드슨(William Henry Hudson, 1841-1922)이 주장한 '자기표현 본능설[46]'이 바로 이와 같은 오늘 자기 자신의 주체성과 생애 시간과의 상관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려는 본능이 있으며 이러한 욕구 속에서 예술과 문학이 태어났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주체적인 특성에 대하여 다른 학자들 역시 주목해 왔다. 철학자 로렌스 베커(Lawrence C. Becker, 1939 - 2018)는 자율적인 사람의 인생에는 가격을 넘어서는 측정과 비교가 불가능하고 한계가 없는 위엄이 있다고까지 평했다.[47] 이것은 오늘에 충실함을 시작으로 생애 시간 전체에 주체성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 즉 나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순간이자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건축가 렌조 피아

---

45) 충일한 삶은 열린 현실을 감지하는 열린 의식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열린 의식으로 현실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회정치적 현실에 형향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그와 무관하게 편향과 경사(傾斜)를 줄이면서,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문광훈, 『예술과 나날의 마음』(서울:한길사, 2020), 229.

46) "자기표현 본능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검색일. 2021.03.05.
https://opendic.korean.go.kr/search/searchResult?query=%EC%9E%90%EA%B8%B0%ED%91%9C%ED%98%84%EB%B3%B8%EB%8A%A5%EC%84%A4

47) 프랑크 마르텔라, 『무의미한 날들을 위한 철학』, 성원 역(서울:어크로스, 2021), 163.

노(Renzo Piano, 1937-)는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주성이란 정신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정을 제대로 뒷받침할 만큼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충분한 능력과 자주성이 있음을 뜻하며, 삶 전반에 호기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48] 이처럼 오늘의 주체성은 단순히 오늘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이란 24시간 동안 발휘되는 기간 제한의 성격이 아니라,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에서 비롯하는 자신의 생애 시간, 즉 삶을 진두지휘 하는 출발선 일 것이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새로이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새벽을 가르고 정동진으로 향하던 때의 마음가짐을 한 번 떠올려 보자. 1월 1일에 떠오르는 해는 평소의 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위안을 얻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새로 주어진 오늘에 다시 발휘할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오늘을 대하는 태도의 중심에 주체적인 개인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즉 오늘의 내가 발휘하는 주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위와 계속 비교하게 되는 목표 의식과 이에 급급한 시간의 사용 방식, 미래를 오늘보다 먼저 생각하는 현재의 세태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삶의 목표가 위치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현실과 오늘의 의미가 소실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49] 그렇기 때문에

---

48) 도쿄 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안도 다다오 연구실, 『건축가들의 20대』, 신미원 역 (서울:눌와,2008), 34.

49) 이것에 대해 프랑크 마르텔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당신은 인생을 품어 안고 살아내기보다는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 인생을 이용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주체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바탕으로서의 오늘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즉, 오늘의 주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가장 나다운 '나'로 대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의 목표를 위하여 그저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자 하는 나의 역할이 바탕이 될 때 본연의 역할이 드러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50] 이것은 프랑스의 예술 비평가인 조아킴 가스케(Joachim Gasguest, 1873-1921)가 화가의 임무를 '객관화 하는 일'. '투영시키는 일', '포착하는 일'로 보았던 것[51]과 유사한 방식이다.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한 명의 현대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일과 형식이 일치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한다. 이것이 이번 연구의 궁극적인 연구 의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연이어지는 오늘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오늘의 의미에 대해서는 2항 '**가능성의 시간으로서의 오늘**'에서 이어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내가 꼽은 오늘의 유의미한 성격 중 다른 하나로, 오늘의 반복적 특징과 이에 비롯한 동시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하여 특히 논하는 항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최종 결과물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상의 작고 반짝이는 순간들을 보지 못한다."
프랑크 마르텔라, 위 책, 224.

50) 홍자성(洪自誠, 1573-1619)은 저서 『채근담』에서 "하늘이 나에게 액운을 당하게 하면 나는 내 도리를 끝까지 실행하여 가로막힌 길을 통하게 하련다(天阨我以遇 吾亨吾道以通之 天且我奈何哉)." 라고 하였다.
홍자성, 『채근담』, 윤미길 역 (서울:하서, 1999), 96.

51) 안성하, 위 논문, 3, 재인용.

이 될 것이다.

2) 가능성의 시간으로서의 오늘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른 어느 시간 단위 보다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매일 다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뒤집어 보자면 반복된다고 정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간개념의 단위를 특정하자면 바로 일상일 것이다.[52] 사전적으로 일상[53]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일컫는다. 일찍이 르페브르는 일상이란 반복의 여러 변형인지 아니면 반복의 집합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54]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는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반복에 대한 관점이 흥미롭다. 들뢰즈는 저서 『차이와 반복(Différence et répétition)』에서 현대적 삶에 대하여 일찍이 "우리는 우리의 안팎에서 지극히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반복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반복들로부터 끊임없이 어떤 작은 차이, 이형(異形), 변양(變樣)들을 추출해내고 있

52) 일상이라는 개념은 일요일이나 축제일과는 반대로 평일이라는 개념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것은 노동과 의무(여가나 한가함과는 반대로), 획일성과 습관(예외와 축제, '체험'과는 반대로), 소외(자유나 자기규정과는 반대로)의 영역을 포괄한다.
볼프하르트 헹크만, 『미학사전』, 김진수 역(서울:예경, 1998), 287.

53) "일상",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2.25.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9D%BC%EC%83%81

54) 앙리 르페브르, 위 책, 69.

다"[55]고 하였다. 이것은 반복을 지루하고 팍팍한 것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만들어졌다는 것 즉, 반복을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가능성의 전제 작업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56] 쉽게 말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영위(營爲)해 나갈 수 있는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제까지의 삶의 흐름을 긍정하는 지속 가능성 역시 바로 여기서 비롯한다. 이렇듯 오늘이란 매 순간 새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습관화된 생활 양식으로 인하여 유사한 형태가 연이어지는 것이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과 일상은 둘 다 현재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개념적으로는 겹쳐지기 보다는 서로 그 등을 맞대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오늘이란 계속해서 새로이 잉태된다는 인식보다는 반복되는 생활로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다. 쳇바퀴 돌 듯 멈추지 않고 매일 계속 되는 삶을 쉬지 않고 마주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끝 없이 몰려오는 적을 상대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오늘을 감당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힘에 부치는 일이 될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삶은 운동(life is motion)[57]'이라고 말했는데 오늘이 현대인에게 간혹 불안이나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해석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끊임 없이 반복되는 오늘이라는 관점에서는 현대인

---

55) 이자혜, 강승묵, 위 논문, 52, 재인용.
56) 들뢰즈가 언급한 반복은 같은 것의 되풀이가 아니라 '차이'를 생성하는 것이다. 반복의 결과물이 차이인 것이다.
이자혜, 강승묵, 위 논문, 52.
57) 강영안, 위 책, 230, 재인용.

의 불안은 당연할지도 모른다.[58] 이러한 불안은 점차 가속화 되는 사회적 변화와 적응이라는 관점과 결합되어 사람들에게 중차대한 무력감을 안긴다.[59]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심리학자 밀드레드 뉴먼이 다음의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다. 뉴먼은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든 그는 사슬에 묶여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 "인간은 사슬에 묶여 태어났으나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60]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연이어지는 생활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여지와 새로이 시작되는 오늘의 잠재적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 즉, 이것은 자신의 생애 시간을 탈력(脫力)감으로 먼저 대하는 것이 아닌 가능성의 시간으로서 긍정하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오늘이야말로 여느 시간개념에 비해 가장 실현 가능한 공간[61]이자, 가능성 그 자체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현실로 대표되는 다양한 시간 단위

---

58) 머무는 것, 쉬는 것, 정지하는 것은 곧 죽음이다. 그러므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부단히 움직이는 가운데는 쉼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따라서 불안이 근대적 인간 삶의 근본 양식으로 자리 잡는다.
강영안, 위 책, 230.

59) 존 업다이크는 『진화에 대한 비판적인 에세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기는 헤어릴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함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음을, 한량없이 기나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던 지질학적 시대를, 공간이 남아도는 은하계와 파악하기 힘든 아원자들의 행동을, 물질의 중심에 있는 일종의 터무니없는 수학적 폭력을 우리 앞에 펼쳐 보였고, 그 결과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버렸다."고 했다.
프랑크 마르텔라, 위 책, 28, 재인용.

60) 밀드레드 뉴먼, 위 책, 55, 재인용.

61) 우리는 아무런 예언도 없는 미지의 공간을 더듬고 있는 것이다.
박래현, 「봄이면 생각나는 일, 삶과 마주 섰던 계절」, 《박래현, 삼중통역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20, 17, 재인용.

중에서도 오늘은 여타 다른 시간 단위보다 지각 가능하고 행동 가능한 순간을 표상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순간을 통해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속 나라는 사람과 나를 둘러 싼 환경을 특정하고 또한 감각 할 수 있다. 즉 오늘은 감각의 여지를 열어주는, 매번 새로이 주어지는 각기 다른 시간이다. 따라서 오늘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의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오늘이라는 시간 단위를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인식 변화의 지점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됨을 알 수 있다. 문광훈은 저서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현실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선, 즉 가능성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62]고 했다. 르페브르도 일상을 그대로 수락하고 일상을 살아서는 결코 일상의 본래 모습을 포착할 수 없으며, 삶은 일상을 수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곧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 하였다.[63] 고로 오늘은 새로이 주어진 날로써 곧 생애 시간에 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로써 역할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연 한다. 혹자는 이러한 가능성의 관점에 대하여, 다가올 '내일'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아닌 이미 발 디디고 접해 있는 '오늘'에 집중하는 까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위에서 이야기했듯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매몰되고 현재 상태에 침잠하기 쉬운 최근의 사회적 상황이 이러한 의문을 상쇄한다. 빠름과 바쁨으로 대표되는 현대인의 삶의 방식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조급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달라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해왔다. 일례로 칼

62) 문광훈, 『예술과 나날의 마음』(서울:한길사, 2020), 229.
63) 앙리 르페브르, 위 책, 88.

가이슬러(Karlheinz Geissler, 1944-)는 사회적으로 확정된 적합한 시간과 부적합한 시간은 이제 없다고 했다.[64] 이것은 바로 현대 사회에 이르러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과 그로 인해 분화된 시간으로 하여 기인한 불확실성이다. 결국 자의식이 주관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지금 당장, 즉 오늘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험하는 가능성의 장으로 일컬을만 하게 된다. 이것은 미국의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1932-)이 제시한 현재라는 시간개념과 함께 보자면 그 의미가 더욱 정확해진다. 아이젠만은 "이제 현재는 과거와 현재 진행 중인 시간의 기억과 내재(immanence), 즉 새로운 종류의 종언의 현재(the presence pf end), 즉 미래의 종언(the end of the future)이라는 상호 무관한 양극을 포함한다"[65]고 했다. 이것은 고전적인 과거-현재-미래의 선형적 시간개념을 넘어 다양한 현재의 종류 시간개념으로써 제시하는 것이다. 그의 개념은 도발적이면서도 주관적 시간 인식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명쾌하다. 현재에 기준하여 인간의 생애 시간과 그 태도를 바라보는 것은 곧 오늘과 서로 상통하는 바가 크다.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는 시간대인 오늘에 대해 앎은, 현대인들에게 현대 사회에 걸맞는 시간개념의 태도[66], 즉 기준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내가 본 연구를 통하여 오늘에서 비롯

---

64) 프랑크 베르츠바흐, 위 책, 225, 재인용.

65) 라파엘 모네오, 『8인의 현대 건축가』 이영범, 정태용, 이상현, 임기택 역(서울:공간사, 2008), 211, 재인용.

66)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이 말하는 일종의 '태도 변경'이다.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방식으로 말한다면 경험을 뛰어넘어, 경험과 독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험적 관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강영안, 위 책, 89.

한 새로운 시간개념을 제시하는 까닭이다. 르페브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일상을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람들은 박탈감이나 결핍의식, 불만 때문에 지금의 현실과는 다른 어떤 삶의 가능성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을 탄생시킨다고 했다.[67]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의 의미야말로 매일 새로 주어지는 오늘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현실과 삶에 대하여 가장 유의미한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비유하듯 삶이나 일상이 팍팍하다거나 지루하다고 쉽게 치부해버리기에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프랑크 마르텔라는 저서에서 "우리가 무언가의 의미 있음 또는 의미 없음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사실 그 일이 다른 사람들과 더 넓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68]고 했다. 이것은 가능성으로부터 비롯하는 오늘의 의미에 대한 본 연구는 '나'라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의미이자,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과 긍정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능성이고 고민할 수 있는 여지일 것이다.

사전적으로 앞으로 실현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이 절에서 사용한 것은 한걸음, 한걸음씩 발 내딛어 살아 나가야 하는 생애 시간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성장의 면모로서의 의미를 크게 함의하고자 함이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현대 사회의 각 개인에 따라, 바로 이 가능성이라는

67) 강승묵, 위 책, 21, 재인용.
68) 프랑크 마르텔라, 위 책, 177.

유의미한 가치의 기대 영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간주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나는 살고 있다, 그것만으로서 충분하다”[69]고 말했던 월트 휘트먼(Walt Whitman, 1819-1892)의 말에 한 번 주목해 보자. 나는 이것이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개념을 특히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 주지 시키기 위한 이야기라 본다. 이어질 Ⅲ장 ‘**오늘의 의미를 담은 찻잔 표현**’에서는 이러한 오늘의 의미가 실제 작업에 어떻게 사회적 세태를 반영하고 또 유의미로써 녹아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어떠한 태도로 작업하고자 했는지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하도록 하겠다. 이 장은 실제의 작업 내용과 과정을 반영하고 기존에 널리 알려진 작품의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이해 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69) 임어당, 위 책, 99, 재인용.

Ⅲ. 오늘의 의미를 담은 찻잔 표현

이 장에서는 앞서 알아본 오늘의 의미를 각 절의 내용으로 하여 그 기저의 가치적 유의미가 어떻게 표현 되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먼저 이것은 현대인의 시간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 그리고 오늘에서 연장되는 삶이라는 생애 시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전제한다.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그리고 회화적으로 확장되는 내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실례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표현이란 나 자신에서 시작되는 시간 경험의 관점에서 삶의 방향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예술 경험으로서의 인식과 작업 내용까지 확장되는 과정과 회화적 결과물을 이야기한다. 프랑크 마르텔라가 이야기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유의미[70] 역시, 나는 오늘을 통해 찾을 수 있다고 확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물질적 가치를 위시(爲始)하는 현대인들의 상식선과 그것을 초월한 오늘의 가치를 회화적으로 풀어내고자 했던 나의 내면 의식을 철학적, 그리고 미학적 관점에서 반영한다. 위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나에 대해 인식함은 물론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결정권에 관계된 시간임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오늘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시사한다. 오늘을 통하여 내 자신의 내면에 침잠 해 볼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

70) 유의미함은 아주 사적이고 대단히 주관적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독특한 심리적·유전적·사회적 배경과 기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온 당신의 경험의 좌우된다
프랑크 마르텔라, 위 책, 139.

Ⅲ장 '**오늘의 의미를 담은 찻잔 표현**'에서는 오늘의 의미가 실제로 작품에 반영되는 과정을 작업 과정과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논하고자 하였다. 문광훈은 일상의 사물을 그리는 것에 대하여 "일상의 평범한 사물과 그러한 사물을 담은 그림과 그림을 그린 화가는 저 무한한 단순성 속에서 서로 깊게 화응한다. 일상을 넘어서는 것은 이 화응 속에서 가끔 이루어질 것이다"[71] 라고 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서 비롯한 경험을 토대로 찻잔과 나의 작업 그리고 그 내용을 형상화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행동적이고 감각적인 부분에서 모두 저마다의 의미를 낳는다. 때문에 오늘의 의미를 담은 찻잔 표현이란, 오늘에서 비롯된 나의 인식 경험과 그 결과물을 모두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 있어서 첫째로 '**주체적인 오늘을 담은 찻잔**'에서는 자신의 작업에 생애 경험을 중요시하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주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탐구 해야 하는 오늘의 의미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화된 의미를 각 항의 제목으로 하여, 내용과 표현 형식에 있어서 오늘의 의미를 앞으로 상세히 풀어내겠다.

1. 주체적인 오늘을 담은 찻잔

주변에서 무척이나 흔한 찻잔을 그림의 소재로 삼게 된 이

71) 문광훈, 『예술과 나날의 마음』(서울:한길사, 2020), 118.

유는 다음과 같다. 일상적인 경험을 토대로 추상적 가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찻잔[72]이란, 단어 그대로 차를 따라 마시는 잔을 뜻한다. 그러나 차 문화가 전통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특성상 차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 범주가 아주 크게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차[73]란 차나무의 어린 순을 달이거나 우린 물을 뜻함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마실거리를 모두 차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이 식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을 이야기 할 때도 '차 마시러 갈래?' 라고 말한다. 게다가 집마다 냉장고에 꼭 한 병씩 넣어져 있는 보리차나 결명자차, 그리고 여름을 맞아 꼭지 하나하나를 손질하여 담그는 매실차나 빠알간 색이 예쁜 오미자차 등 우리의 일상에 문화적으로 차라는 것은 마실거리로서 매우 넓고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게도 찻잔이란, 실제의 특정한 사용처를 뛰어넘어 일상 전반의 음료 전반을 이야기할 때 마다 함께 불려오게 되었다. 이렇듯 찻잔이라는 기물의 존재 자체가 일상적인만큼 나는 이를 통해 자꾸 관계가 쌓이고 경험이 겹쳐진다. 그리고 나의 눈에 비친 찻잔에는 치열한 삶의 고민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찻잔과 반기(飯器)가 함께 그릇이라는 한 범주에 있음에도 말이다. 일상적으로 이만큼이나 흔하게 쓰이는 기물이지만 찻잔에는 밥상머리에 사용되는 여타 식기와는 조금 다른 경험들이 묻어 있다. 이것은 찻잔이 식기와

72) "찻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7.27.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B0%BB%EC%9E%94

73) "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7.27.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B0%A8

는 달리 밥을 먹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시세끼 마다 바쁘게 먹고 다시 힘을 내서 일터로 나가야 하는 데에 식기가 사용되는 것은 현대인들의 사회적으로 훈련된 시간개념 그리고 그에서 비롯한 강박과 닮은 데가 있다. 그렇게 이번 연구의 배경과 작업의 소재가 연결되는 지점이 여기서 생긴다. 흔히 현대인들이 그들의 휴식에 밥공기가 아닌 잔이 함께하는 장면을 곧잘 상상하는 까닭은 아마 차 한 모금, 커피 한 모금 넘기는 그 시간이 단순히 먹고 사는 행위를 넘어서는 마지노선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74]

1) 자기 결정의 순간

앞서 이야기 한 시간개념과 더불어, 각자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고민 역시 오랫동안 연구 대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주목했었던 까닭은 프리드리히 셸링(F.W.J. Schelling, 1775~1854)이 "예술은 우리가 감흥이라고 일컫는 가장 내적인 심정이나 정신의 힘들의 생생한 운동에서만 생겨난다. 답답한 또는 대수롭지 않은 시원에서 위대한 힘과 높이로까지 성장한 것은 모두 감흥을 통해 위대한 것이 되었다"[75]고 했던 것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오늘, 내가 느낀 것, 내

74) 김다운, 「미리보는 전시, 《오늘담다》」, 『월간 전시가이드』 163, 서울:월간크라트 , 2019, 84.
75) 프리드리히 빌헬름 요제프 셸링, 위 책, 61.

가 생각한 것 그리고 행동한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함과 동시에 그만큼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짐을 감사하게 한다. 나는 이것을 삶이라는 거대한 생애 시간 역시 오늘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고 또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오늘이라는 시공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에 접근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오늘은 나를 파악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근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한 사람의 몫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강한 현대 사회에서도 개개인에 주목해야할 필요 충분한 요건이다.[76] 그러나 오늘은 어제 세운 계획으로 가득 채우는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일 때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크 베르츠바흐는 창의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것을 더욱 자각적으로 알아차리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늘을 어제의 계획과 미래의 목표로 채워넣는 경우를 무척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미래의 목표는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닌 때도 있다. 혹은 자신을 위하는 일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한 목표인 때도 있다. 이것은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그로 인한 깨달음을 원천적으로 나에게서 완전히 구별된 외부의 것으로 간주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파생하는 일이다. 왜 현대인들은 자신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인가? 흥미롭게

---

76) 공예슬은 이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겪고 있으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모두 한 명의 현대인으로써 취향과 개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공예슬, 《Personal Life (2021)》, 에브리데이몬데이 갤러리, 페이지 없음.

77) 프랑크 베르츠바흐, 위 책.

도 시간을 의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과 완전한 대척점에 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 시간이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돈과 마찬가지로 재화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동전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다. 실수로 흘려 버리거나 맥없이 다른 이에게 속아 쉽게 빼앗길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현대인들의 불안은 이와 같이 도처에 만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도 결정하기 어렵고 선택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나의 의식과 내면에 대해 기민하게 파악하고 또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오늘 나 자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베르츠바흐는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취하고 싶은 방향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성찰할 때에야 비로소 창조성은 우리 삶의 한 형식이 된다고 했다.[78] 나의 삶을 통틀어 나 자신이 가장 나 다울수 있기 위해, 우리는 지금 오늘 바로 생각하고 행동 해야 한다. 이 때 오늘의 행동이란 바로 자기 결정[79]의 결과이다. 이것은 자신이 부여한 가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작점인 것이 분명한데, 선택을 종용하는 사회와 그에 떠밀려진 사람들만 있고 실제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 하기만 하다.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직업에 대한 관념 역시 마

78) 프랑크 베르츠바흐, 위 책, 225.

79) 비에리는 스스로 결정짓는 삶은 규범의 틀 안에서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없는 삶, 그리고 어떤 규범을 통용할 것인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했다.
페터 비에리, 『자기 결정』, 문항심 역, (서울:은행나무, 2015), 10.

찬가지이다. 특기와 능력에 의한 직업 선택만큼이나 흔한 선택의 방식은 사회적으로 인정 받느냐 혹은 받지 못 하느냐에 관한 때가 많다. 심각한 경우에는 돈을 더 벌거나, 더 벌지 못하느냐 일 때도 있다. 나는 이 때에 자기 마음을 따르는 선택은 주체성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한 결정이란, 호의호식(好衣好食)하는 방향이라 흔히 해석하고 만다.

> 우선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게 속 편하단 얘기죠. 마냥 하던 대로 하나의 나쁜 행동이 다음으로 이어지도록 놔두면서 똑같은 자기 패배를 답습하는 것은 일종의 안정감을 주니까요.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어날지 압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루기 쉽게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에 떠는지 그 이유를 압니까? 우리 주위의 폭력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게 이해가 안된다는 느낌 자체가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80]

밀드레드 뉴먼은 그녀의 저서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그들의 결정권을 사회적 가치에 매몰하는 경향을 분석한다.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간주되는 선택들은 정말 옳은 선택일까? 나는 사회와 그로 인한 관계에서 벗어난 오롯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의 영역으로 해석하고, 이 선택을 위한 가치 판단의 근거와 판정에 이

80) 밀드레드 뉴먼, 위 책, 43.

르기까지 내내 주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은 한 명의 자랑스러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하고자 할 때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요소이다. 현대 사회의 구성원이자 한 개인으로서, 대체로 선택하거나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는 무척이나 집약적이고 국소적이다.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그 어떠한 정치적이거나 철학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행복하고자 한다는 미명 아래에 결과 중심적이기만 할 뿐이다. 이것은 영국의 도덕철학자인 밴덤(Jeremy Bentham, 1748~1832)이 이야기 한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에 한다는 공리(功利)의 극대화를 생각나게 한다.[81] 나는 이 지점에서 의문을 다시 한 번 던진다. 정말 이러한 방식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으로 간주 할 수 있는가? 공리주의자들의 한계는 둘째 치더라도,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인정 받은 가치관은 개개인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과연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생애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지 등의 매일 작은 결정들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오늘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단호한 태도를 통하여, '나'라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추구하는 오늘을 보내는 것이다. 즉, 오늘은 나를 위해 행동하고 결정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오늘은 나를 표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실현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오늘에서 비롯되어 종래엔 삶을 관통하는 활동[82], 즉 삶의 완성을 일컫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81) 마이클 샌델, 위 책, 55.
82) 자아실현에 대해 프랑크 마르텔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다.

〔참고도판1〕 샤르댕, 〈은물잔〉 1768년경, 캔버스에 유채, 33x41cm, 루브르 박물관

〔참고도판2〕 샤르댕, 〈산딸기 바구니〉 18세기 경, 캔버스에 유채, 38x46cm, 개인소장

이란 시간을 사소히 여기고 삶이라는 시간을 아주 무겁게 여긴다. 그리고 마치 오늘이란 과정에 불과하고 미래는 결과인 것처럼 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둘의 상관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오늘에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결정권을 발휘해야 하는 여지는 언제나 오늘의 안에서 시시때때로 발견 될 것이다.

일찍이 주체적인 자신의 태도를 회화로 녹여낸 화가가 있다. 바로 프랑스 로코코 시대에 정물화가로 활동한 샤르댕(Jean -

---

"오늘날에는 이 표현이 너무 흔히 사용되고, 요가 의식에서부터 뉴에이지적인 신념 체계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나는 자아실현이 그보다 더 단순하고 일상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내가 보이게 자아실현은 자율성과 유능감이라는 두가지 필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다.
프랑크 마르텔라, 위 책, 213.

Baptiste - Siméon Chardin, 1699-1779)이다. 샤르댕의 그림에서는 따뜻하고 경험적인 오늘에 대한 태도가 재차 확인된다. 연이어지는 그의 정물화에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삶에 녹아드는 것이 회화로써 눈에 보인다. 18세기 로코코 양식으로 대표되는 당시 유행에 따라 많은 화가들에게 통속적이면서 서민적인 회화의 방향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샤르댕은 이러한 유행과는 상관없이 정물화가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데, 여기에서 주체적인 삶의 결정이 엿보인다[83]. 그리고 정물화가가 된 샤르댕은 일상의 관찰, 오늘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함께 놓이는 정물로 하여금 그의 삶의 모습을 짐작하게 하는 그림을 남겼다. 즉 그의 정물화는 오늘이 하루 중 어디 쯤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시선으로 관조되고자 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일상적인 삶을 보여주는 그림에서 샤르댕이 경험한 각기 다른 오늘의 모습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화에 사용된 소재가 일상적인 것이기에 특히 드러난다.[84] 샤르댕이 평범

---

83) 로코코 회화 속에서는 인물의 표정, 동작, 옷자락과 대기 등 모든 것이 끊임 없는 '움직임' 속에 있었는데, 샤르댕은 움직이는 것을 그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화가는 모든 것을 자기 머리 속에서 찾아 구상을 해야 한다'는 아카데미적 역사화의 대의 역시 그의 기질과 맞지 않았다. 결국 그는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이젤 앞에 놓아두고, 머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정물화라는 정반대의 길을 통해 자기 자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샤르댕",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21.03.1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0592&cid=58862&categoryId=58878

84) 샤르댕의 그림에 등장하는 물건들은, 식기든 도자기든 과일이든 되풀이된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변에 있어왔던 것으로 이 흔한 것들은 하찮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그림에서는 하찮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알 수 없이 정겹고 친숙하여 때로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소중함이 더해져 고귀하게까지 여겨진다. (...) 모든 것이 고상하고 고귀할 수는 없으나 내팽겨쳐도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장 평범함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참고도판3〕장승업, 〈꽃〉부분, 제작연도미상, 수묵채색화, 124x34cm, 북한 조선미술박물관.

〔참고도판4〕장승업, 〈기명절지도〉부분, 1894, 수묵채색화, 195.6 × 431.8 cm 메트로폴리탄.

〔참고도판5〕장승업, 〈기명절지도〉부분, 1894, 수묵채색화, 195.6 × 431.8 cm 메트로폴리탄.

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를 통해 당시의 유행이나 흐름에 무관하게 오늘의 모습을 관철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흔히 사용되지 않던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자신의 회화 세계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은 사람이 있다, 바로 장승업(張承業, 1843~1897)이다.

장승업은 일상적인 소재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기명절지화(器皿折枝畵)를 창안하였다. 화가이자 미술사학자인 김용준(金瑢俊, 1904-1967)은 「오원일사(吾園軼事)」에서 "그때까지 기명과 절지는 별로 그리는 화가가 없었던 것인데, 조선 화계에 절지,

---

문광훈, 『예술과 나날의 마음』(서울:한길사, 2020), 123-124.

기완 등 유(類)를 전문으로 보급시켜 놓은 것도 오원이 비롯하였다."라고 하였다.[85] 장승업은 고종의 명령도 훌훌 털어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대체로 집착 없는 삶의 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경우 그가 그나마 연연한 것은 술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가 기명절지화를 통해 주변의 흔한 소재에 접근했던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해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콕 찝어 주전자나 잔으로써 그의 그림에 자주 출현하는 것도 수긍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화가이자 계몽 운동가였던 오세창의 일화를 찾을 수 있다.

>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 1864~1953)은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에서 이렇게 밝혔다. "(장승업은) 술을 좋아하고 거리끼는 것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술상을 차려놓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당장 옷을 벗고 책상다리하고 '절지(折枝)와 기명(器皿)'을 그려 주었다."[86]

동·서양 회화가 각각 추구하는 지점이 다르고, 정물화와 기명절지화가 서로 상이한 표현 양식임을 감안하더라도 샤르댕과 장승업의 작품에서는 주체적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은 오늘 자신이 겪은 경험에 그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무엇을 그릴지 선택하고 정립하는 자신의 화풍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화풍을 결정하

---

85) "기명절지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1.03.1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8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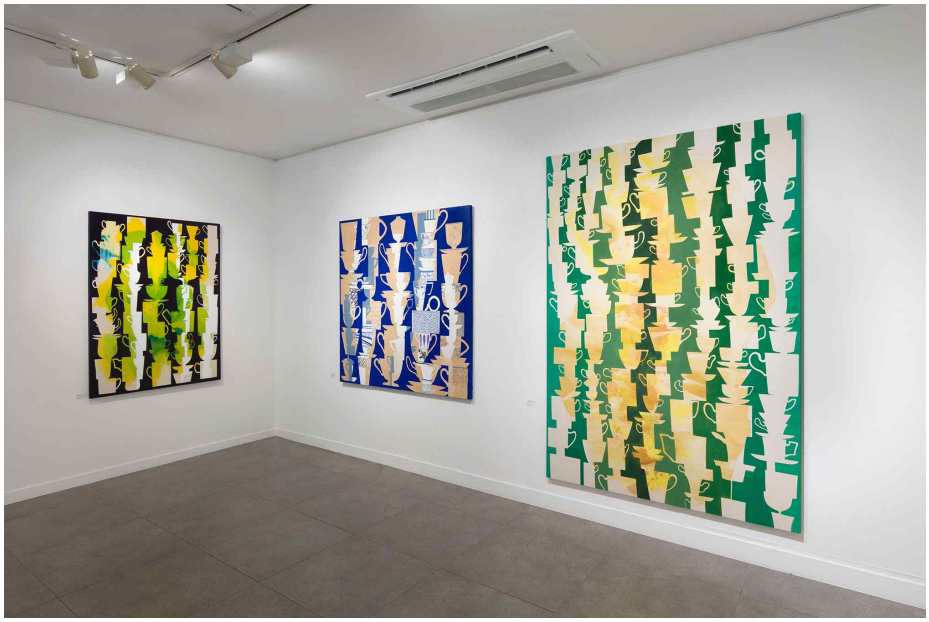
86) 손영옥, 「〔근대 미술 거리를 걷다〕9. 동양의 정물화 '기명절지화' 유행을 일으킨 장승업」, 『국민일보』, 2019.10.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10638&code=61171611&sid1=al

〔작품도판1〕〈담다 #2〉, 2012, 순지에 채색,
각 162.2x130.3cm, (총 2점).

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오늘의 결정을 통해 나의 생애 시간 전체의 방향성과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이어진 오늘의 모습, 또한 이로 하여금 삶의 방향성을 알 수 있게끔 하는 회화적 가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오랜기간 고민해왔다. 이러한 의도는 나의 작업 초창기부터 꾸준히 중요시 되었다. 〔작품도판1〕을 보면 이러한 고민이 일찍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작품 안에서 찻잔 하나는 오늘이기도 하고, 내가 주체를 발휘한 작은 결정의 순간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찻잔들, 즉 주체적 결정의 순간들이 모여 무언가 길을 이룬다. 이는 역설적으로 내가 살아온 삶을 오늘의 자취로서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삶을 관조 하는 방식에 있어 이러한 시각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이것은 소위 자아의식[87]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87) "자아의식",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3.04.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9E%90%EC%95%84%EC%9D%98%EC%8B%9D#none



〔참고도판6〕《오늘담다》, 갤러리 라메르 전시 전경.

있을 것이다, 오늘이라는 세계관[88]을 통해 나 자신과 나의 삶에 대해 바라볼 수 있고, 이러한 주체성을 드러내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기에 삶이라는 생애 시간을 향하는 태도 정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사한다. 이것은 비에리(Peter Bier, 1944-)에 이르러 한 단계 더 심화된다. 비에리는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결정하는 또 하나의 형식이며, 그렇기 때문에 표현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89] 즉, 내가 보내는 시간 자체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그 시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

88) 월터스의 정의를 따르면 세계관은 '사물에 대한 기본 신념들의 포괄적 틀'이다.
강영안, 위 책, 89, 재인용.
89) 프랑크 베르츠바흐, 위 책, 47, 재인용.

게 한다. 나에 대해 알아가고 유희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90] 그렇기 때문이 나에게 있어 삶과 작업이란 불가분한 관계를 이야기 하고 또한 이것은 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일 것이다.[91] 이러한 자기 주체성을 회화적으로 화폭 안으로 옮겨 오기 위하여 특히 사용된 구도적 특징에 대해서는 추후 Ⅳ장 2절의 **'종적 집적(集積) 이미지와 병렬구도'**에서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2) 자기 성찰의 계절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정해진 시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미덕인 현대 사회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많은 일이란 다원화된 현대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분화된 개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일찍이 시간과 자신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던 지점임이 흥미롭다.[92] 시대에 발 맞추어 부족하지 않은 한 명

90) 작가노트, 2021.03.17.

91) 이에 대해 루카치(Georg Lukács, 1885~1971)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그는 일상은 예술의 출발점이자 종결점이라고 하였다. 그 까닭은 일상을 부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예술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예술이 일상에 거꾸로 영향을 미쳐 그 일상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볼프하르트 헹크만, 위 책, 290, 재인용.

92) 시간에 인색해지는 것도 잘 알지요. 닥쳐 오는 두서없는 일들에 허둥지둥하는 것도 잘 알지만 이런 것을 소리 없이 정리하기에는 약간 늙어버린 것 같습니다. 슬프세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항상 나보고 욕심쟁이라고 하지요.' (...) 그저 먼 곳에 이상이라는 프랑컷(placard)을

의 구성원으로써 제대로 역할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걸맞는 현대인으로 흔히 간주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나 역시 더더욱 그러한 부담감을 느낀다. 나는 한번에 여러 가지 일을 잘 하는 것이 어렵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림을 그릴 때 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이다.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간간히 음료로 목을 축이는 정도였다.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의 시간에 꼭 함께 하는 말 그대로의 일상다반사가 되었고, 멀티플레이어로서 내 시간을 밀도있게 보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완화하는 매개체가 되었다.[93]

찻잔[94] 에 티백을 담그고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나면 투명했던 물이 점차 색을 가지게 되고 종래에 차가 우러난다. 바로 이 때 나는

달아 놓았으니 그 곳에 가까이 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의 우등생이 되겠지요. 어디 우리도 이 신통한 사람들 사이에 한몫 끼여 소처럼 일해 봅시다. 소라고 고된 날뿐이겠어요. 때로는 조용히 웃는 날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박래현, 「남편에게 주는 편지-소처럼 일해 봅시다」, 《박래현, 삼중통역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20, 37, 재인용.

93) 허차서(許次紓, 1549-1604)는 1597년에 쓴 『다소(茶疏)』에서 '마음이 불안정할 때'와 '오랫동안 책을 읽고 시를 썼을 때'를 차 마시기에 좋은 순간들로 꼽았다. 창조적인 일을 하면 기운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잠시 일을 멈추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쉬면 기력도 다시 생기고 일에 대해서도 거리를 둘 수 있다. 또한 허차서는 차를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일할 때'와 '책을 읽고 공부할 때', 그리고 '심적 압박과 억압을 느낄 때', '편지 쓸 때'를 들었다. 이러한 중세의 충고를 오늘날 우리의 업무 일상에 맞에 옮겨보자면, 일을 하는 동시에 자극적인 음료를 급하게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크 베르츠바흐, 위 책, 235-236. 재인용.

94) 토머스 칼라일은 『의상철학』에서 "제대로 바라보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 어떤 사물도 하찮지 않다. 모든 사물은 철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무궁함 그 자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다."고 했다.
프랑크 마르텔라, 위 책, 84, 재인용.

나의 시간을 새삼 감각할 수 있게 된다. 마치 피부에 스치는 바뀐 바람결에 계절의 변화를 느끼듯, 작지만 나의 시간에 대해 재감각할 수 있는 계기인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차를 마시는 시간을 나 자신이 가장 나답게 보내는, 나에게 집중하는 대표적인 시간으로 꼽는다.[95]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한 가지를 잘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잘 하는 것에 비해 결코 뛰어나지 않은 일이다. 당장 마트에 가더라도 투 인 원(2 in 1)이라던지 다용도라던지 하는 수식어가 물건 앞에 붙는 일이 흔하고 이걸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하게 느껴지는 세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찻잔이란 알면 알수록 한 가지 역할에 특히 특화된 물건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중국의 자사호의 경우 한 가지 차 종류만을 우리는데 쓴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지역으로 전파되고 발전된 차 문화에 있어서 그 역할이 정신 없이 혼재되지 않고 여전히 각각의 개성이 두드러짐이 흥미롭다. 이러한 찻잔의 종류와 역할에 대하여 박세연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풀어내었다.

에스프레소의 온도를 지키는 데미타스, 홍차의 향을 머금은 넓고 얕은 잔, 어떤 음료든 척척 담아내는 머그, 음료의 시원함을 그대로 전달하는 유리잔, 보온을 위한 둥글고 두꺼운 잔, 누구든 이동하며 마실 수 있는 종이컵까지, 그냥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잔에는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훌륭한 맛과 향과 분위기를 전달

95) 작가노트, 2021.03.17.

하기 위한 정성이 숨어 있다. 차가 찻잔을 통해 입으로 전달될 때까지의 모든 것을 위해 만들어진 소통의 도구이다.[96]

이것은 찻잔은 물론 현대인들에게도 저마다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름을 긍정 한다. 개개인의 분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찰이 빚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 지점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업에서도 찻잔이란 무늬가 있거나 없거나,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등에 상관없이 무척이나 다양한 형태와 무늬 그리고 사이즈로 나타난다. 실제 존재하는 찻잔을 그리는 때도 있고 상상하여 그릴 때도 있다. 그 형태와 크기가 다양한 것에서 개개인 저마다의 오늘의 모습, 경험 그리고 깨달음 등 모두 서로 다름을 긍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이처럼 찻잔이라는 기물은 자기 성찰적 관점에 있어서 현대인의 역할을 환기 시킬 만 하다.

선생이 나에게 화전춘을 나눠주니
색과 맛, 그리고 향기, 하나하나 새롭다
하늘 아래 떠도는 한 깨끗이 씻어주니
뉘라서 알리오, 좋은 차 아름다운 사람과 같음을….[97]

---

96) 박세연, 『잔』(파주:북노마드, 2012), 443.
97) 先生分我火前春, 色味和香一一新,
滌盡天涯流落恨, 須知佳茗似佳人.
최성민, 「다다익선(茶茶益善)」, 『한겨레』, 2004.04.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0054975

자기 성찰적 시간이 차와 찻잔을 매개로 하는 경우들은 문헌적으로는 고려시대의 다시(茶詩)[98]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 말기의 문인 이숭인(李崇仁)이 '백염사혜다(白廉使惠茶)'라는 시에서 좋은 차는 하늘 아래 떠도는 한까지 씻어줄 수 있다고 했다. 당시 한명의 지성인으로써 느끼는 삶에 대한 인식은 현대인의 그것에 못지 않았을 것이다. 역시 고려시대의 문인 척약재 김구용(金九容)의 '만공창취(滿空蒼翠)'에서도 찻자리를 통해 가지는 자기 성찰의 시간에 대하여 엿볼 수 있다. 세상사의 시름을 떨치고자 함은 곧 성찰하고자 함이고, 이를 위한 시간에 찻잔이라는 대상이 함께한다는 것은 차가 정말 약효가 뛰어나다거나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닐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김구용 또한 일상적인 소재를 통하여 스스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몰입 하고 개인적인 성찰을 얻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차가 세상사를 잊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차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주적인 시간을 회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푸른 빛은 허공에 가득하고 보슬비는 내리고
구름 사이로 홀로 날아가는 학을 즐겁게 바라보네
누각에 올라 하루 종일 보내도 쓸쓸하지는 않구나
차를 끓이는 소리 들으며 세상사를 모두 잊도다.[99]

---

98) 지식층에 속하는 일부 우리 선조들은 漢詩를 짓고 즐기는 생활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는 차를 소재로 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차를 소재로 한 茶詩는 다른 한시가 갖는 시대 정황이나 지은이의 사상 외에 시대별로 선조들의 차 생활과 차 정신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박숙희, 「高麗 茶詩에 나타난 脫俗과 養生의 美學」, 2010, 8-9.

99) 滿空蒼翠雨霏微, 喜見雲間獨鶴歸,

〔참고도판7〕 공민왕, 〈위기도〉, 제작연도미상, 견본채색화, 137.2x65cm, 일본 시센시(泗川子) 소장.

〔참고도판8〕 공민왕, 〈위기도〉 부분,

莫怪登樓消永日, 煮茶聲裏坐忘機.
유성준, 「척약재 김구용의 (金九容) 생애와 시 (詩)」, 1980, 20. 재인용.

고려시대는 한국 차문화의 최전성기로 여겨지는 때이다. 차를 일상적으로 대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여기는 고려 사람들의 모습이 『고려도경(高麗圖經)』에도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며 종일토록 담소하니 이것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더위를 쫓는 방법이다"[100]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에 차를 마시는 것이 무척이나 일상적이며 소위 일을 하는 시간과 분리 되어 있었음을 알게 한다. 당시의 이러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회화 작품 역시 전해져 온다.[101] 〔참고도판7〕과 〔참고도판8〕은 고려시대 31대 공민왕(恭愍王, 1330-1374)의 작품으로 전칭하는 위기도(囲碁圖)[102]와 그 확대 부분이다. 그림 속 바둑판 주위에 둘러앉은 인물들에게 작은 소년이 찻잔을 건네주고 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일상적으로 차와 함께 하는 모습이 익숙해 보이고 무척이나 편안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생식(生息)의 영역이 아닌 주체성에 대한 회복의 시간을 상징하는 그릇은 바로 찻잔이다. 찻잔은 나의 감각을 일깨우는 대상이자 오늘을 담는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나는 당장 오늘의 그릇을 채우고자 한다, 어느 각도에서든 보일 만큼 가득. 그렇게 나의 오늘을 시각화 하고자 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참고도판10〕에서 내가 감각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찻잔에 담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시각적으

---

100) 김부귀, 「고려 다기(茶器)에 관한(寬限) 연구(硏究) -다완(茶碗)과 다주자(茶注子)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39권, 2007, 167, 재인용.

101) 김부귀에 따르면 고려시대 회화에 다기(茶器)가 나타난 예는 불화 3점, 고분 벽화 1점, 회화 1점이라고 하였다.
김부귀, 위 논문, 162.

102) 고연희, 「〔문화〕 고연희의 옛 그림 속 인물에 말을 걸다 (12) 공민왕 전칭작 '위기도'」, 『문화일보』, 2013.01.2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12501033130242002

〔참고도판10〕〈사계〉, 2018, 장지에 채색, 각 22.0×27.3cm (총30점), 《오늘담다》(2019) 갤러리 라메르 전시 전경.

로 인지 가능하게끔, 회화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을 통한 시간개념에 대한 접근은 초기에는 사계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다소 딱딱한 계절 단위로 진행되었다. 사계절이라는 주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다양한 예술·문화적 영감이 되어온 주제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계절이나 절기 따라 딱딱 맞아 떨어지기만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감각적인 계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시간개념을 회화적으로 제

〔작품도판2〕〈봄 옷자락에 여름 바람이 스칠 때 #1〉, 2020, 장지에 채색, 116.8x91.0cm

〔작품도판3〕〈봄 옷자락에 여름 바람이 스칠 때 #2〉, 2020, 장지에 채색, 116.8x91.0cm

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점차 관심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졌다.

이것은 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의 순간적인 성찰에 무게를 둔다. 더운 바람에 옷깃을 젖히거나 차가운 바람에 옷의 단추를 잠그는 것 그리고 더운 김을 식히기 위해 시원하게 한 잔 담아낸 아이스티에 맺힌 물방울과 같이, 경험적인 오늘의 생생한 깨달음 말이다. 이에 대해 부연하자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BC 322)가 "날씨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103]고 했던 이야기를 들 수 있겠다. 이 때의 작업이 바로 4점 연작으로 진행 된 〔작품도판2〕, 〔작품도판3〕, 〔작품도판4〕 그

〔작품도판4〕〈봄 옷자락에 여름 바람이 스칠 때 #3〉, 2020, 장지에 채색, 116.8x91.0cm

〔작품도판5〕〈봄 옷자락에 여름 바람이 스칠 때 #4〉, 2020, 장지에 채색, 116.8x91.0cm

리고 〔작품도판5〕이다. 대개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이 시기는 늦봄 혹은 초여름으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그에 가깝다 뿐이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환절기라는 애매한 한 때를 시각화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느끼는 지금 당장의 오늘 그리고 내가 감각하는 순간 자체를 계절감으로 시각화 하고자 했던 작업이다. 이때의 순간적 성찰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철학적 개념의 만남은 이후에 〔작품도판6〕과 〔작품도판7〕의 제작 배경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

103) 반기성, 「날씨는 삶이다」,《날씨의 맛》, 서울 시립 미술관, 2018, 54, 재인용.

〔작품도판6〕〈오늘 한낮의 햇볕은 마치 여름날 같아서 #1〉, 2021, 장지에 채색, 91.0x116.8cm

〔작품도판7〕〈오늘 한낮의 햇볕은 마치 여름날 같아서 #2〉, 2021, 장지에 채색, 91.0x116.8cm

의 내가 감각하는 이 고유한 경험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사진가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 1908-2004)의 '결정적 순간(The Decisive Moment)[104]'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겠다. 이것은 내가 감각하는 오늘이라는 나의 경험을 순간적인 성찰을 통하여 화폭에 고정하는 것이자, 오늘의 진솔한 모양새에 대한 표현으로서 곧 나의 주체적인 시간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찻잔에 담아내고자 했던 나의 의미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작품은 〔참고도판9〕과 같이 병화도(甁花圖)나 기명절지화[105]를 무조건적으로 계승한 것은 아니다.[106] 나의 찻잔에 담긴 것은 여타의 박고도(博古圖)처럼 주변을 꾸미거나 과시하는 목적 없이 오롯이 자신을 나타낸다. 이것은 전승용이 "자연경관, 소리, 공기 등 자연이 지닌 다양한 감각적 경험 요소들을 바탕으로 '나'라는 존재적 가치를 성찰한다"[107]고 했던 이야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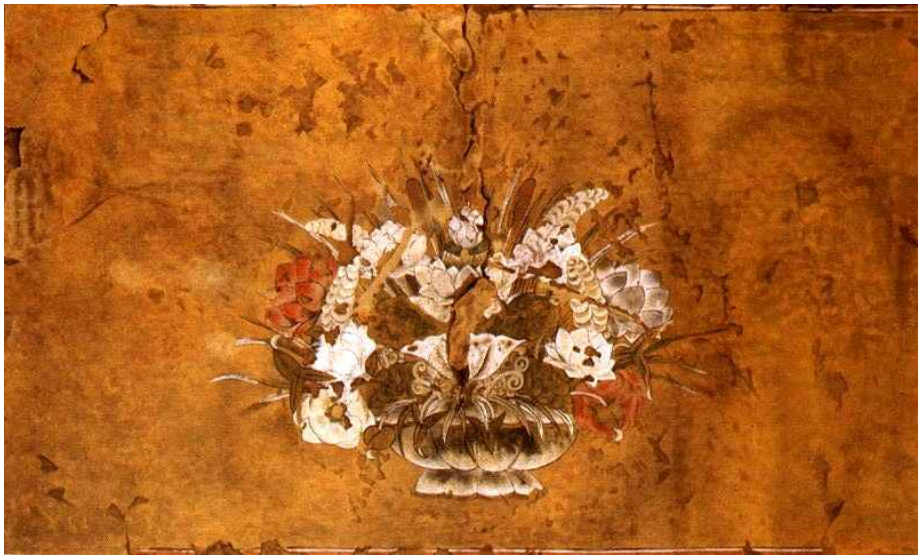
---

104) "결정적 순간", 두산백과사전, 검색일 2021.04.19.
카르티에 브레송은 "결정적 순간이란 렌즈가 맺는 상(像)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이 시간을 초월한 형태와 표정과 내용의 조화에 도달한 절정의 순간"이라고 하였다.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26217

105) "기명절지화"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일 2021.03.14.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8%B0%EB%AA%85%EC%A0%88%EC%A7%80%ED%99%94&ridx=0&tot=904

106) 이 화초들은 일차적으로는 볼거리이지만 손잡이가 달린 컵 속에 담겨있어, 특히 후자 방식의 작품에서는 화채처럼 먹거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각 화초의 크기, 색상 및 위치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선택되어 화면의 중앙에 그려진 김 작가의 '아름다운' 화초그림들은 감상되는 곳에서 실제의 꽃을 대신하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기도 해, 서양의 정물화보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화조도에 가까워 보인다.
김정희, 《갤러리 시선 2인 공모전 (EXHIBIION - No.21-02-27)》, GS건설 갤러리 시선, 2021, 페이지 없음.

107) 전승용, 《유고군산군도(遊古群山群島)》, 한원미술관, 2020, 6.



〔참고도판9〕 임천(林泉, 1908~1965), 〈수덕사벽화모사도〉, 1937, 수묵채색화, 117x204cm, 국립중앙박물관

도 상통 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경험은 오늘 지금의 '나'로서 비롯된 것이자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 탐구는 나의 오늘을 넘어 삶에 대한 태도와도 관련한다. 이것은 나의 크고 작은 성찰로써 유래한 오늘의 감각을 시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통해 그의 의미와 가치에 침잠하여 고찰하는 순간 자체를 시각화 하는 작업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지금 내가 행동하는 오늘이라는 시공간의 자의적이고 주체적인 특성과 관련된다. 매번 딱 맞게 재단할 수 없는 오늘의 모양새만큼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생각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오늘의 과정을 그림으로 풀어내고자 한 것이다. 정섭은 대나무를 그리면서 스승을 계승한 바 없으며 종이창과 흰 벽의 햇빛과 달 그림자 중에서 많이 얻었을 뿐이라고 했다.[108] 이것은 천재의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고찰과

그에 따른 깨달음을 소중히 여기는 오늘의 주체적인 태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갈로(葛路, 1926-) 또한 예술의 법칙은 예술실천에서 점진적으로 발견하고 확립한 것이므로 예술법칙의 형성에는 객관사물의 여러 가지 속성이 표함되어 있다고 했다.[109] 나는 이와 같이 나의 오늘에서 획득하는 나의 시간, 그리고 계절로 연결되는 시공간적 경험과 관심을 소중히 여겨 나의 회화에 아낌없이 적용하려 하고, 이에 따라오는 일상의 객관사물, 찻잔의 속성을 기민하게 살피려 한다. 이것이 내가 오늘에서 찾는 성찰이자 삶을 바로 바라 보고자 하는 태도인 것이다.

오늘을 통하여 궁극적인 회화적 가치를 담고자 하는 일은 이제까지 논한 것과 같이 주체적인 시각에서 시작되어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연구 과제일 것이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여상히 여겨지는 오늘과 나의 주체성에 대한 무게감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도상학 연구자인 미야자키 노리코(宮崎 法子, 1952-)는 "사물이 사람들에게 연상시키는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그것이 상식일수록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의미와 상징성이 잊혔을 때, 상식은 고찰(연구)의 대상으로 바뀐다"[110] 고 말했다. 이것은 내가 오늘에 대하여 집중하는 까닭이자 현대인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개념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를 다시금 부연한

---

108) 정혜린,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성남:신구문화사, 2008), 201, 재인용.
109)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역, (서울:돌베개, 2010), 515.
110) 기시 후미카츠(岸 文和, 1950-), 「길상 도상학」, 『한국의 채색화』 2(2015), 339, 재인용.

다. 이것은 하루가 다르게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생애 시간의 막연함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작업으로서 그 의미를 다시 환기하고자 함이다. 이에 이어 2절 '**가능성의 오늘을 담은 찻잔**'에서 주체성에 더해 가능성이라는 가치가 오늘로 대표되는 현실의 시간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에서 다른 시간개념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실제 작품과 전시 사례를 예로 들어 논하고자 한다. 이는 나의 작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오늘의 유의미함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되었는지 중점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에 관련 한다. 이것은 나의 세부적인 작업의 내용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이 모든 의미를 아울러 하나가 되게 하고 오늘에 대하여 구체화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리하여 오늘에 대한 이제까지의 작업에 있어서 나의 태도와 인식을 다시 확인하는 지점이자 앞으로의 작업에 도움을 위하여 그 기틀을 다지는 논의가 될 것이다.

2. 가능성의 오늘을 담은 찻잔

블교에 결함세계(缺陷世界)라는 단어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 결함투성이 세상이라는 말이다.[111] 그리고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繪)는 원래 '근심스러운 세상'이란 뜻의 '우키요(憂世)'로 쓰여졌다.[112] 이것은 우리네 존재가 불

111) 장유승, 박동욱, 이은주, 김영죽, 이국진, 손유경, 『하루 한시』(서울:샘터, 2015), 18.

확실하고 고된 세상살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과거로부터의 유물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노자의 대기만성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치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자신의 그릇의 완성에 대해서 궁금해 할 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추측뿐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노력을 한다 해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확실해 보이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의심 받고 삶의 분기 때때마다 시험 당하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이 목표 지점은 언젠가 다가올 미래에 위치해 있어 현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간을 삶이라는 무소불위의 위엄으로 대할 때, 그리고 삶에 있어 그 가치가 절대적인 성공 밖에 없을 때, 이러한 불안감은 만성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개념을 의식하고 구별할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언제인지 모를 미래의 시점이 아닌 지금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오늘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새로이 시작되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역할하고 사유할 수 있는

---

112) 일본에서는 고대 중세 이후로 염세적인 인생관이 팽배했는데, 정토(淨土)에서의 성불(成佛)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이상적 내세에 대하여, 현세는 싫증나고 벗어나야만 할 근심의 세계로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현세를 근심스러운 세상이란 뜻의 우키요(憂世)로 표현했다. (...) 그런데 경직된 무사사회도 어언 반세기가 지나 근세를 맞이하게 되자, '잠시 머무는 현세에서야말로 뜬구름처럼 훨훨 즐겁게 지내자꾸나'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차츰 전환하게 된다. (...) 더욱이 지금 현세의 세상과 풍속, 느낌이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재인식하고, 현세풍(現世風), 당세풍(當世風)과 같은 의미조차도 함께 가지게 된다. 피안의 세계보다도 현실을 생각하고, 과거나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현세에 무게를 두는 우키요(浮世)의 인생관이야말로 우키요에 그림이 가지는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중희, 「일본 우키요케의 세계② 대중의 낙천적 에너지를 담다」, 『월간 민화』 28, 서울:디자인밈, 2016. 111.

여지인 것이다. 거대하고 무거워 어디서부터 손 댈지 알 수 없는 삶이라는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내가 마주 보고 있는 경험적 가능성이다. 매일 새로이 주어지는 가능성의 시간으로써 오늘을 주체적으로 대할 때, 종래에 우리의 삶은 그 무게와 모양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의 문인 이연종은 한시 '사박치암혜차(謝朴恥庵惠茶)'에서 차솥에서 불어오는 솔바람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맑아진다고 했다.[113] 현대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은 이러한 여지일 것이다, 빽빽하여 헤아리기 힘든 삶이라는 숲에 오늘이라는 한 뼘 여백을 만들어 내 발자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잠시간의 발견 말이다.

1) 자기 발견의 실마리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나의 작업은 찻잔이라는 소재와 오늘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일상적인 기물로써의 찻잔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 역할과 가능성에 기반을 둔다. 미국의 앤디 워홀(Andrew Warhol, 1928-1987)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일상의 사물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114] 이 말은 나에게 주변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잔에 대해서, 매번 찻잔을 마주할 때마다 새로이 나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자꾸

113) 松風入鼎發颼颼 聽知足可淸心耳.
김인혜, 「한·일 차인(茶人)의 특징 비교 - 차구(茶具)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 59호(2014): 153, 재인용.
114) 김수진, 「일상적 사물을 통한 일상성 표현 연구」, 2009,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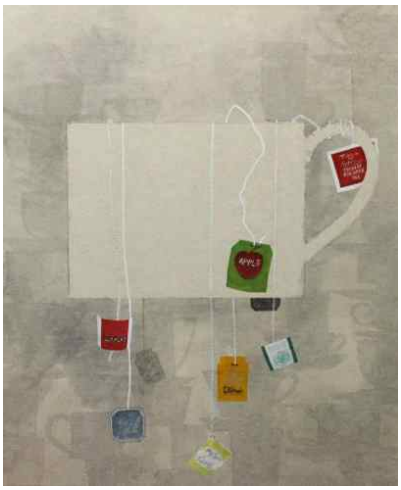
고민하게 한다. 하지만 이때의 초기 작업들은 찻잔의 이러한 역할은 강조하면서도 막상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소위 신비주의를 고수하였다. 이 때의 작업에 있어 가장 주요 했던 계기가 무엇이냐고 하면 졸업 전시 준비이다. 당시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가치에 대하여,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달려왔는지, 알 수 없는 데서 비롯한 감정이 우선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나는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이제까지처럼 마치 손으로 모래를 그러 모으던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껑충 올라설 만한, 단단한 벽돌 하나를 쌓아 올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눈에 선한 게 마치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했다. 그런데 막상 나의 손짓이, 붓질을 아무리 그어 봤자 그저 그런 그림에 그치는 것 같아서,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 누구도 마라톤의 총성을 울린 적이 없는데 언제 시작했는지 조차 모르게 그렇게 경기가 한창인 것만 같았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일 년이라는 마감일이 정해진 최초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주어지면서, 날짜 감각이 점차 무뎌질 정도로 반복되는 준비 작업이 연이어지고 이러한 불안은 점차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20대의 청년이 낼 만한 성과, 남에게 내 보일 만한 기준, 이것은 누가 정했는 지는 몰라도 깊이 스며들어 나에게도 역시 무력감을 야기하고 있었다. 나의 그릇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무엇으로 차 있는지 당연히 알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이 텅 비어 있을 것만 같은 걱정에 한편으로는 들여다 보는 자체가 두려웠다. 그저 겉으로 보기에 그럴 듯한 모양새를 갖춘 그릇이

〔참고도판11〕〈실마리 #2-3〉, 2015, 장지에 채색, 각 70×70cm (총 2점), 《담다, 찻잔》 갤러리 탐(耽) 전시 전경.

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 이 때문에 초기의 작업들은 찻잔은 모두 화려한 무늬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 되었으며, 감상자에게도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형태와 구성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 아래에 작업이 전개되었다.

흥미롭게도 나의 알맹이, 즉 내용과 그 모양, 그리고 성숙도에 대해 생각이 많을수록 점차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다. 불안은 마치 장마철의 무겁고 습한 공기의 무게감처럼, 견딜만 하지만 분명히 나의 어깨 위에 자리잡는다. 먹구름이나 짙은 안개와 같이 이러한 불안은 쉬이 걷히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찻잔 안의 내용물을 추측하는 이러한 불안감 그 이면에는 다른 감정도 있다. 흥미롭게도 이 바탕에는 기대감이 위치 해 있

다. 바로 이제까지 쌓아온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긍정적인 시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마치 금전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것과 같이 각 개인의 오늘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개 결과에 매몰된 기준에서 비롯한 성과를 기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의 나 자신은 이러한 당장의 성과나 목표의 달성으로 가치 판단 할 수 없는 주체적인 존재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쫓을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는 검은 하늘의 장막을 찢어내고 나타나는 말간 태양처럼 그 끝에 찬란한 오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마치 시간을 낚는 강태공처럼 찻잔 속에 늘어뜨려진 티백의 끝을 잡아당긴다. 찻잔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열쇠 구멍의 모양새가 흥미롭다. 그리고 이 실마리는 결국 제 역할을 마친 열쇠처럼 유려하게 가능성을 끌어낸다. 이것은 바로 오늘의 내가 행동하고 사유 할 수 있는 여지이고, 생애 시간 중 오늘을 구분할 수 있는 발견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삶에 대한 실마리 그 자체 일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와 기대의 중도에, 바로 오늘이 있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이다. 나는 나의 오늘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오늘을 통하여 내가 느낀 것을 표현하고 또 이를 통해 다시금 고찰하고자 하는 점에서 나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다. 즉,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나에 대하여 깊이 꿰뚫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부터 비로소 찻잔의 무늬에 대한 묘사 보다는 담겨있는 차에 대한 선염 이미지와, 찻잔의 주변의 실마리의 출현이 이루어졌다. 특히 작품 〈실마리〉 연작에 있어서는 걸쳐진 티백 태그(tag)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그 메시지를 강조한다.



〔작품도판8〕〈실마리 #1〉, 2015, 순지에 채색 73x92cm

〔작품도판9〕〈실마리 #2〉, 2015, 장지에 채색, 70.0×70.0cm

얼핏 유사해보이지만 〔작품도판8〕과 〔작품도판9〕는 각기 다른 두가지 방식으로 가능성의 발견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도판8〕의 경우 역시 하나의 잔에 여러 개의 티백 태그가 걸려 있어 얼핏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나라는 한 사람의 잠재력이 여러 갈래로 나타 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지금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 인지는 알 수 없어도 내용물을 내색하는 티백 태그처럼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작품도판9〕의 경우 그 끝을 알 수 없는 긴 실의 가닥이 눈에 띈다. 마치 엉켜있는 실 뭉치처럼 보일 정도이지만 그 끝을 표시하는 티백 태그가 잊지 않고 달려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성의 존재를 긍정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꼭 그 끝

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열쇠라는 장치로써 사용되었다. 이러한 발견의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의 비평가 임어당(林語堂, 1895-1976)은 이러한 잠재력과 그 발견에 대하여 다도(茶道)에 빗대어 '관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냉철한 두뇌로 뜨겁게 달은 세계를 능히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진 힘[115]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각자의 찻잔에 들어 있는 무형의 가능성은 본인만이 찾을 수 있고, 또 부여할 수 있는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찻잔이라는 프레임을 통하여 무형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만을 제시하는 간접적인 표현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감상자 각 개인이 본인의 상황과 기질에 맞추어 감정이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작업은, 지속할수록 점차 종잡을 수 없거나 두루뭉술한 이야기로만 비춰진 것 같다. 마치 구멍만 덜렁 뚫려 있는 상자[116]와 같이 '너가 바라는 게 여기 다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들여다 보면 잘 보이지 않거나 혹은 잘 알 때까지 들여다보기 힘들고 바쁜 그런 상황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조금씩 구체적인 오늘의 모양새를 제시하고 실마리는 그림 사이에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모티프로 등장시키기 시작했다. 〔작품도판10〕과 〔작품도판11〕의 실마리가 바로 그것이다. 고양이가 손을 뻗는 곳 끝에,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의 언저리에 티백 태그와 실이 달려 있다. 이것은 한번도 본 적 없는 투명 옷[117]의 존재를 믿으라는 것보다는 컵에 물이 반이나 담겨 있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115) 임어당, 위 책, 204.
116) 프랑스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éry, 1900-1942)의 소설 『어린왕자(1943)』
117) 덴마크작가 한스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 1805-1875)의 동화『벌거벗은 임금님(1837)』

〔작품도판10〕〈시선 끝의 실마리 #3〉, 2018, 장지에 채색, 72.7x6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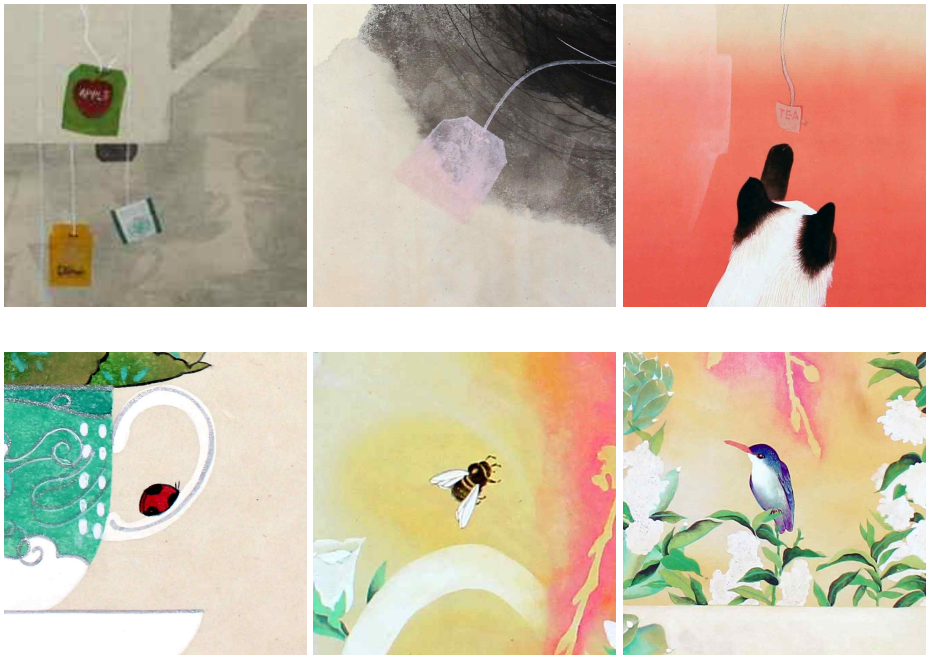
〔작품도판11〕〈시선 끝의 실마리 #4〉, 2018, 장지에 채색, 72.7x60.6cm.

묻는 것에 가까운 방식일 것이다. 누군가는 생텍쥐페리의 이야기에 무릎을 탁 쳤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추재시초(秋齋詩抄)》에 실려 있는 조선 후기의 시인인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시, '국침(菊枕)'의 한 구절이 더 와닿는다.

> 겉으로는 그저 보잘것없는 물건이지만
> 그 안에는 맑고 산뜻한 향기가 있지.[118]

아무리 좋은 향기가 나고 노란 국화 꽃잎이 잔뜩 들었다 하더라도, 흘깃 보아서는 잘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얼굴을 대어도 보고 향기도 맡아봐야 한다. 잘 모르겠으면 호기심이라도 가지고 관

118) 外面自是等閑物 中心別有淸新馥
장유승 외, 위의 책, 84.



〔참고도판12〕 상징적 '실마리' 소재 활용의 예시

심을 기울여 눈길이라도 줘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실낱 같은 가능성이라던지, 혹은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가능성으로 향하는 방식을 알 수 있게 된다. 흥미롭게도 이는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김춘수(金春洙, 1992-2004)의 '꽃'과도 일맥 상통한다.[119] 그렇게 나는

119)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2021.04.26.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

조금씩 나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놓게 되었다. 나에게 찻잔이란 어떠한 가능성인지 또 어떻게 어떠한 의미를 파생시키는지 말이다. 그리하여 실마리는 주제가 되어, 찻잔 그림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실과 티백 꽁다리만이 아닌, 때때로 무당벌레나 벌, 그리고 새와 초목처럼 주변 환경의 모습으로서 관심과 가능성의 의미 역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참고도판12〕에서 보이듯 점차 서로 시선을 마주 할 수 있는 생물로도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발견이란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력이라는 사고 전환의 영향을 반영한다.[120] 이것으로 연이어진 찻잔의 길은 믿어 의심치 않는 가능성에 닿아 있는, 나의 오늘로 하여금 즉 삶의 나침반과 같이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2) 자기 긍정의 일상

몽테뉴(Michel Eyquem de Montaigne, 1533-1592)는 저서 『수상록』에서 "나는 내 삶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내 직분이고 사업입니다."[121]라고 했다. 이것은 생애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가 실

EA%BD%83&ridx=1&tot=386

120) 꽃그림 속 짝을 이룬 새와 작은 동물들은 눈길이 따뜻하고 다정하다. 아름다운 공간에서 사랑을 누리고픈 소망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 박명자, 정병모, 고연희, 「왜 꽃그림인가?」, 《조선시대 꽃그림(2018)》, 갤러리 현대, 페이지 없음.

121) 문광훈, 『미학수업』(서울:흐름출판, 2019), 페이지 없음, 재인용.

제로 살아가는 경험적 자신을 획득 할 수 있는 때[122]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오늘을 통하여 나의 시간을 바라본다는 것은 연이어진 삶을 긍정하고 하루하루에서 비롯된 나의 경험적 잠재력을 인식하는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세계는 오늘이라는 시공간에서 출발하여 연장되고 확대되어 이어지고, 일상이나 삶과 같은 새로운 지칭이나 정의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의 경험으로 모여 이루어져 일상으로서 생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오늘이야말로 삶을 관통하는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긍정의 시간이고 관점 일 수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긍정적이라는 단어를 '정답'이라는 뜻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일상이 사회적으로 오해가 빚어지거나 또 잘못이 되풀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사전적으로 긍정[123]이란 그러하다고 생각하거나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으면 부정적인 것은 정말 오답인 것처럼도 들린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자기 몸 긍정주의(The Body Positivity Movement)의 경우 긍정이란 옳고 그름의 판단과 별개이며, 오히려 상황이나 주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함에 가깝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 W. Nietzsche, 1844-1900)에 의하면 긍정이란 어떠한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함이다.[124] 즉, 니체에게 삶은 그래서 정해진 답 없이 결

122) 이자혜, 강승묵, 위 논문, 49-50.
123) "긍정",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7. 29.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A%B8%8D%EC%A0%95
124)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안성찬 역 (서울:책세상,

백하고 순진무구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놓인 조건만이 있을 뿐이다. 비에리 역시 법적, 도덕적 규범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체성이 생기고 그러하여 우리는 자유롭고자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규범을 통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나의 행복과 존엄에 관여한다고 하였다.[125]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던가 아예 다른 삶의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며 대부분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가속화된 발전과 많은 인구로 인한 도시화로 만연한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 사회를 바라봄에 있어서 대체로 부정적인 면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는 지점이 있다. 이것을 나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인식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알게 한다고 여기고 경험적 오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게 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탐색을 오늘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에서 비롯하는 나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지게 하고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하여 생활과 삶에 영향을 주는 일 역시 결정하는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현대인의 불안함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고자 하거나 납득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자 함도 아니고 그렇지 못한 것을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오늘 그리고 삶이라는 시간 의

2005), 284.
125) 페터 비에리, 위 책, 10.

식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고민해 온 바를 논하고자 함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외부와 내부의 경험을 모두 오늘 안에서 겪고 이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로 합일된다. 르페브르는 감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로 실생활과 상식 그리고 사유 속에서의 감각은 결국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감각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비교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126] 이것은 내가 감각하고 행동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오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 중요성에 대하여 환기 시킨다. 그리고 오늘에의 생활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감각은 역시 나의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강영안은 몸의 주체를 통해 의식된 시간은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심의 주체이자 시간 의식의 주체가 될 수 있다[127]고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나의 몸을 통해 체득되고 의식을 통해 탐구하는 경험적인 의미로써 발휘된다. 나는 이렇게 나의 삶에 참여하고 이에 따라 모습을 바꾸거나 역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오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게 한다.

나를 삶과 생활에 있어서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오늘의 내가 경험하는 것을 기준 삼는 다는 것이다. 이것은 석도(石濤, 1642-1707[128])가 주장 했던 '나는 스스로 나의 법을 사용한

126) 앙리 르페브르, 『리듬분석』, 정기헌 역, (서울:갈무리, 2013), 92-93.
127) 강영안, 위 책, 77.
128) 탄호, 『선으로 바라본 석도의 '화어록' 연구』, (서울:북랩, 2018) 24.

다'[129]와도 연관이 있다. 위에서 니체와 비에리의 말을 빌려 자유롭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면, 이는 법이 없는 비도덕적 상황에서의 자기 마음대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의 눈을 신경쓰지 않고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것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늘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어떠한 경험을 쌓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의 기준이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은 완전히 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한 없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자면 거창하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누구나 이미 겪어 본 적 있다. 자신의 집이나 방과 같은 생활 공간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의 버릇과 생활에 맞추어서 모든 물건이 배열되고 정렬되어 있다. 나의 공간 안의 물건들은 어디에 무엇이 있고 그걸 꺼내려 하면 서랍은 열어야 하는지 손은 얼마나 뻗어야 하는지 아마 눈을 감고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척이나 개인적은 방식이고 또 기준이지만, 왜 그렇게 배치하고 생활 하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다. 바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편했고,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늘이라는 시공간 속에 새겨진 나의 몸의 역사가 나의 생활에도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이 나만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생활의 방식, 이것은 외우거나 해서 기억하기 보다 나의 사고에서 비롯되어 나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내가 생활하는 공간 모든 것에 나의 손길이 닿아 있듯이, 내가 보내는 시간에도 역시 나의 의식이 끼쳐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반복된 일상의 생활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129)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제1편:범론3』, 김대원 역, (서울:소명출판, 2010), 113. 재인용.

생각과 태도는 더욱 완전해진다. 또 이러한 자유가 언제고 나의 오늘 안에서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오늘을 즐거이 대할 가능성으로써 역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 오늘의 경험은 조형 의식의 개념을 세우는 과정이자, 감각을 일깨우는 작업의 근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깃든 나의 역사를 소중히 대하고자 함이다. 이것은 분명히 생활과 삶의 관점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가능성이며 작업을 통하여 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교감의 순간이다. 삶과 내가 만나는 시공간의 관점에서, 또한 차를 마시는 시간 역시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같다. 찻잔에 담긴 내용물에 대한 탐색은 다방면으로 공감각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은 나의 손 안에 들린 찻잔 자체에 대한 탐구 역시 바탕으로 한다. 입술에 닿는 찻잔의 감촉, 내용물의 무게, 코 끝에 와닿는 더운 김과 향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찻잔에 담긴 내용물을 알아내고자 하는 소통이자 내가 보내는 시간 자체를 알기 위한 경험이다. 즉, 나의 일상을 통해 나 자신을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어준다. 이처럼 나에게 차란 단어 그대로 일상다반사로서 자리하여 오늘을 보는 기준이자 작품의 주요한 이야기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의 작품에 드러나는 경험은 실제의 시간과 현실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공간이다. 작품 속에서 이를 표현함은 기억과 기록에 의존하여 완전히 같은 모습을 재현하고자 함은 아니었으나, 필요한 경우엔 글쓰기부터 드로잉이나 핸드폰 사진까지 활용하여 당시의 분위기를 옮기는데 활용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기록 매체가 그 때의 경험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선험적 경험을 이끌어 내는데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종종 사용되

〔참고도판13〕 경험적 일상 소재 활용의 예시

었다, 글쓰기와 드로잉의 경우는 나의 주관에 의한 기록이기 때문에, 핸드폰의 경우는 플래시 드라이브라는 저장매체의 특징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의 기초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상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작업으로 꼭 남기고자 하였다. 〔참고도판 13〕은 핸드폰 사진으로 남아있는 당시의 경험 획득 순간이자, 작업의 시작 의지를 자극한 소재의 포착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나의 오늘의 경험이 나의 의식와 손을 통하여 해석되고, 끝내 작품으로 드러나는 방식 역시 알 수 있게 한다. 흥미롭게도 오히려 너무 화질 좋은 카메라로 작업하는 것 보다 흔들리거나 주변 환경의 간섭을 더 많이 받는 핸드폰 카메라로 편하게 촬영했을 때 실제 작업에 자료로 사용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 하더라도 내가 느끼고 감각하는 경험을 고스란히 옮기고자 하는 감정적인 경험을 싣는데에 기계 장치의 기술적 한계를 느낀 부분이기도 하며, 오히려 흔들리거나 핸드폰 카메라의 한계로 화질의 저하가 느껴졌을 때 그 부족한 부분에 실제 나의 경험과 반추를 불어넣음으로써 입체적인 완성을 이끌어내는 상황을 마주한 적도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비롯되는 회화 작업은 나 자신에 온전히 관련되고 또 다시 투사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프리드리히 셸링이 "예술은 말하자면 자신을 뛰어넘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금 수단 삼는다"[130]고 한 것과도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일상이야말로 오늘의 집합이라 할 때, 이러한 회화적 결과물은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진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제작에 있어서 한정

130) 프리드리히 빌헬름 요제프 셸링, 『조형예술과 자연의 관계』, 심철민 역(서울:책세상, 2017), 50.

선은 세계라는 지칭을 하였는데, 이것은 나의 작품에서 표현되는 시공간적 개념과 특히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 화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이게 하는 자이다. 어떻게 화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는가? 화가가 사물을 볼 때, (a)화가의 신체적 실존과 사물 사이에 서로 열리고 여는 세계경험이 발생하며 이것이 신체적 실존을 통해 전해 오고, (b)이 때에 전해져 온 것에 대한 대답을 화가는 특정한 예술적 표현 형식을 통하여 그림으로 옮겨 놓기 때문이다. 세계경험의 의미적 차원은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림에 현전하게 된다. (a)의 세계는 화가의 신체적 실존의 세계이고, (b)의 세계는 (a)에서의 세계 경험이 변형된 그림의 세계이다.[131]

이 때의 세계라는 단어 선택은 나와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공간을 필요 충분적으로 함의 하는 표현이다. 실제 화가가 외부의 경험을 가지는 일 역시 세계와의 만남이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각자의 세계를 가진 한 명의 개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작업에 대한 이야기 혹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오늘의 경험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파악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기준을 자신에서 세우고 이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법, 그리고 자신의 생애 시간을 보내는 법에 대해 곧 내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내가 연구

131) 한정선, 「메를로퐁티와 파울 클레: 그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메를로퐁티 현상학과 예술세계』(2020), 194.

배경으로 삼았던 오늘의 의미에 대한 환기의 결과일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하여 오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나와 외부의 관계에 대함은 물론 나의 내면의 자유로움을 위해서이다. 이러한 방식을 찾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끊임 없이 고민할만 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예술 창작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만큼 오늘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바쁨과 빠름에 걸맞는 목표 본위의 관점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강제된 형태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오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는 목표나 완성 지점에 그 자신이나 삶 자체에 대한 인식이 위치해 있기를 바란다. 이 것은 인간적 정서의 회복이자 자신의 내면의 울림에 귀 기울일 줄 아는 현명함이다. 당나라 화가 주방(周昉, ?-?)이 그린 〈박접도(撲蝶圖)〉에 송대 시인 양만리(楊萬里)의 "길에서 잠시 쉬며 물화를 보노라"라는 시구가 실려 있다.[132] 이 시구를 읽을 때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도착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가 눈 앞에 어렴풋이 그려진다. 이 여행자의 도착지는 어디였을지, 그는 과연 어디에서 멈췄을지 계속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한 시리즈인 〔참고도판14〕와 〔참고도판15〕는 오늘의 경험과 아직 내 눈에 다 담지 못한 생의 시간에 관한 연작이다. 이것은 가능한 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감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습의 선인장과 다육식물(多肉植物), 그리고 찻잔을 소재로 하여 구성되었다.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상향의 오

132) 道旁小憩觀物化.
정병모, 『한국의 채색화2』 (서울:다할미디어, 2015) 378, 재인용.

〔참고도판14〕〈A Cup of Oasis #1-3〉, 2021, 장지에 채색, 각 90.9×72.7cm, 《A Cup of Oasis》 희수갤러리 전시 전경.

아시스로써의 뜻이 아니라, 일상 속 오늘이 의미할 수 있는 가능성의 면모에서 오아시스를 의미한다. 혹시 오아시스를 찾고자 함이 나의 여행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시 타는 목을 축일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함이라면, 나는 아주 거대한 호수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크고 거대한 물이라면 내가 가야할 곳은 달라질 것이다. 이 연작은 내가 오아시스에 가야할 필요를 느끼고 그에 따라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시작 되었다. 이 작품 연작은 오아시스라는 공간이 수분

〔참고도판15〕〈A Cup of Oasis #4-6〉, 2021, 장지에 채색, 각 90.9×72.7cm, 《A Cup of Oasis》 희수갤러리 전시 전경.

이 부족한 사막이나 소금기 많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을 품고 있는 삶의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것에서 제목을 기인하였다. 마치 발아래 스쳐 지나는 모래알과 같이 무심코 맞이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이라는 공간, 내 발밑의 작은 샘을 발견하는 것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함이다. 『탈무드』에서 랍비 힐레르(Hillel, ?-?)도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133]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오늘에 대한 이해와 몰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기한 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잘 모르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정적을 발견하는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들고 뭐라고 해야할 것 같은 조급함에 사로잡혀 도착지가 불분명한 여행을 시작하곤 한다. 이러한 도착지에 대해 영국의 사상가인 앨런 W.와츠(Alan W. Watts, 1915-1973)가 음악에 빗대어 표현하길, 어떤 노래를 연주할 때 그것을 더 빨리 연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이 아니라고 말했다.[134]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의 오늘을 나의 시간과 의식이 교감하는 장으로 삼고자 한다.

이 장에서 앞서 알아보았던 오늘의 두가지 의미를 분화하여 실제 작업의 내용과 함께 들여다 보았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경험적 자신을 획득해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오늘을 통해 나에 대해 알게 됨을 시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의 내가 행동하고 감흥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 그리고 일상 혹은 삶이라는 시간에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찻잔이라는 소재가 오늘이라는 주제의 전개와 확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실제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오늘을 통해 주체적인 나로서

133) 마빈 토케이어, 『탈무드』, 김연희 역(서울:하서, 2002), 17.
134) 우리는 인생을 마지막에 진지한 목적이 있는 여행이나 순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은 성공이든 뭐든, 어쩌면 사후의 천국 같은 그 마지막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되고 말았고, 거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핵심을 놓쳤다. 인생은 음악과 같은 일이고, 그러므로 당신은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노래를 하거나 춤을 췄어야 했다.
프랑크 마르텔라, 위 책, 226-227.

존재하고자 할 때, 오늘이라는 나의 시간 자체로서의 의미와 오늘을 통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고 탐구하여 어떻게 나의 세계관으로 삼았는지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오늘을 깨어있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표현 행위 그 자체 일 수 있다. 청나라 때 "그림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뜻은 반드시 길상이다."라는 말이 전한다.[135] 이것은 우리가 삶이라는 생애 시간에 있어 오늘을 대할 때 행복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유롭고자 하는 선택의 방향성을 알게 한다. 다만 내가 목표로 삼은 길상에의 방향성이 혹시 물질적이고 목표의식적인 방향이라면, 그것이 오롯히 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한 번쯤 곧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 궁극적으로 나의 작품에 오늘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매진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에서 비롯된 각각의 가치가 작품을 통하여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작업과 연구에 있어 더욱 예민하게 힘쓰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과 조형언어에 대해서는 다음의 Ⅳ장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절 '**평면적 이미지**'에서는 실제 작품에서 드러난 소재들의 모양새를 비교해 보고, 2절 '**종적 집적(集積) 이미지와 병렬구도**'에서는 회화적으로 드러난 구도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형식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3절 '**선염**'에서는 시간적 이미지 표현을 위하여 사용된 동양화의 번짐에 대하여 기법적으로 논하겠다.

---

135) 道必有意, 有必吉祥.
정병모, 「'행복이 가득한' 민화의 세계와 그 이면(裏面)」, 《행복이 가득한 그림 민화(2007)》, 부산박물관, 208, 재인용.

Ⅳ. 조형적 특성

이제까지 내용적으로 나의 작업을 관통하는 오늘과 그에 따른 소재로써 찻잔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같이 내용이나 주제적 면모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은 내가 취하고자 하는 입장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이야기 할 조형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 하는 것은 각각의 작품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이것은 작품의 의도에 따라 기법이나 재료와 같은 조형적 요소가 조금씩 그 상대치를 경중시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형 언어들의 사용의 측면에서 라파엘 모네오(Rafael Moneo, 1937-)는 건축가 렘 콜하스(Rem Koolhaas, 1944)의 작업에 대하여 마치 '칵테일' 같다고 표현 했다.

> 밀도(density)를 만들어내고, 유사성(proximity)을 이용하고, 긴장(tension)을 유발시키고, 마찰(friction)을 극대화시키고, 사이의 것(in-betweens)을 조직화하고, 침투(filtering)를 확장시키고, 정체성(identity)을 지원하고 경계의 흐림(blurring)을 고무하기 위해서 전체의 프로그램은 43x43x58미터의 단일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 통합되었다.[136]

회화라는 장르 역시 다양한 종류의 조형적 특성을 알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한 폭의 작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136) 라파엘 모네오, 위 책, 38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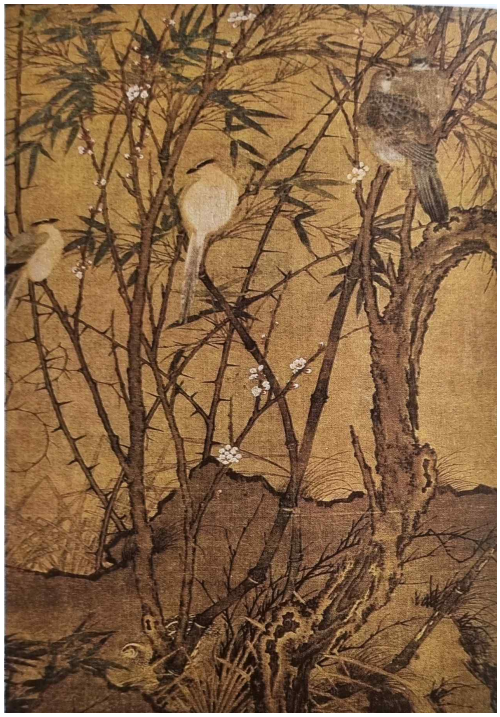
감정선이 모두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은 내가 평소 가지고 있는 입맛이나 습관과 같이,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움직이면서도 주제와 내용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작품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작품 간의 제작 의도와 그 내용에 있어 조형적 특성이 적용되는 기준과 그에 따른 방식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는 적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방향은 적확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있어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그 첫 번째는 바로 화면구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것을 1절 '**평면적 이미지**'에서 나의 작품에 있어 찻잔이라는 소재는 물론 그 외의 사물을 제시하는 방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화폭 위에 소재와 주제가 제시되는 방식이 내용에 따라 보다 다른 모양을 띌 수 있게 되는 것을 2절 '**종적 집적(集積) 이미지와 병렬구도**'를 통하여 구도적인 접근까지 아우르고자 하였다. 이것은 작업을 시작할 때 화면의 조형적 요소의 위치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3절 '**선염**'에서는 차라는 소재에 대한 부연과 이를 통한 시간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동양화의 몰골법을 활용한 번짐 기법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장지를 활용한 진채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작업 양상을 포괄한다. 이러한 조형 요소들은 전시 사례들을 통하여 실제의 작업 예시를 통하여 확인하고, 앞으로의 작업과 연구에 있어서도 그 활용성과 적합성을 꾸준히 분석할 만한 부분일 것이다.

1. 평면적 이미지

회화 작품에 있어 평면성이란 뗄레야 뗄 수 없는 요소이다. 이것은 예술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공간이라 하면, 회화는 특히 그 공간이 평면적인 화폭에 관련하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회화 작품 역시 하나의 오브제처럼 작업하고 전시하는 일이 곧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회화란 장르의 그 기저에는 평면의 흰 바탕이 있다. 이것은 어찌 보자면 회화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이 평면성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절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평면적 이미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흔히 평면성이란 회화의 정보 전달이라는 역할에 관하여, 실제의 3차원 속 물질을 2차원에 재현하는 것 그 자체에 가깝다. 그렇다면 평면적 이미지는 평면적인 시각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에 가깝다.

나의 작업을 살펴보자면, 오로지 한 방향에서 바라보는 시각적 관점이 작품 속에서 주요한 양상을 이루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이렇게 바라 볼 때 찻잔은 특징적인 생김새와 모양새를 평면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찻잔을 정면에서 바라 본다거나, 그리고 위에서 바라 볼 때,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대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로 각기 다른 시각으로 하나의 대상을 바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도된 평면적 이미지는 일견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 느껴지게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각각의 작품마다 특정한 질서와 기준으로써 작용하여 주제나 내용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제임스 케힐(James Cahill, 1926-)은 〔참고도판16〕와 〔참고도판17〕을 예로 들어 당시 궁중화가들이 즐겨 그렸던 화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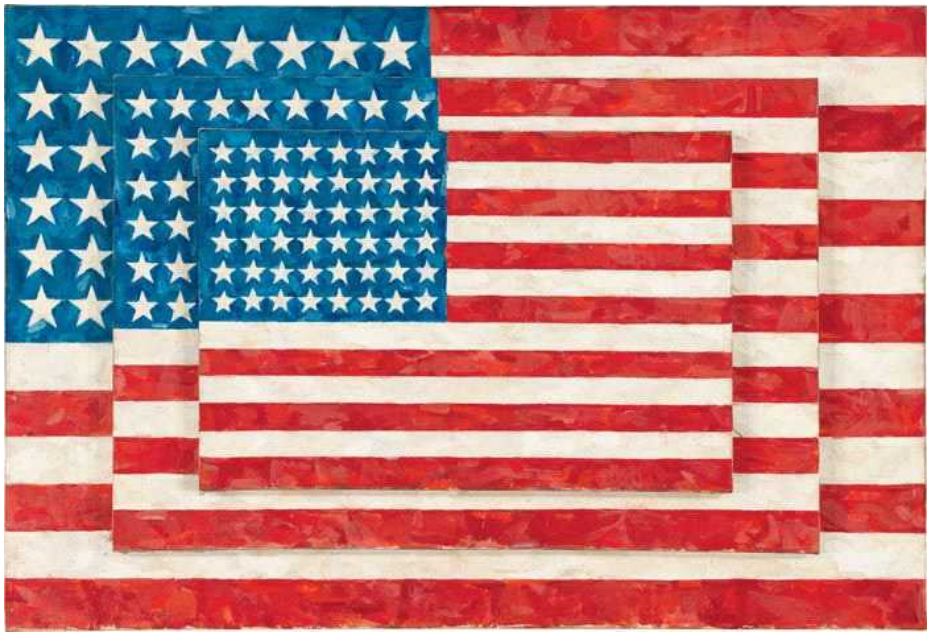
〔참고도판16〕 미상, 〈매죽취금도〉 세부, 12세기초 추정, 견본채색, 타이페이 고궁박물관.

〔참고도판17〕 휘종, 〈죽지이조도〉권 부분, 세로 31cm, 견본채색, 세로 31cm, 개인소장.

〔참고도판18〕 고개지, 〈낙신부도〉 권 부분, 12-13세기 모본, 견본채색, 세로 24cm, 프리어 미술관.

화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특히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나뭇가지들이 부챗살처럼 단일평면으로 펼쳐지는 모양이 드러난다고 했다.[137] 이것은 동양회화에서 전통적으로 드러나는 평면적 이미지의 예이다. 빛과 그림자라는 양감의 절대적 요소와 분리되어 발전한 동양화의 회화적 특징은 오히려 상상력과 표현에 힘을 실어주었다. 케힐이 이러한 특징에 부연하기로는 〔참고도판18〕의 나무와 언덕의 형상은, 실감나는 배경을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한데 섞여서 일종의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다.[138] 이러한 예시로부터 평면적 이미지

137) 제임스 케힐, 『중국회화사』, 조선미 역(서울: 열화당, 2002), 76-77.



〔참고도판19〕 재스퍼 존스, 〈세 개의 깃발〉 1958년,
캔버스에 납화, 77.8×115.6×11.7cm, 휘트니 미술관.

를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또 성공적으로 미감을 끌어내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회화 작품과 실제의 대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면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나의 작업에 있어서 주요한 표현 양식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얼핏 미국의 팝 아티스트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1930-)의 작품 속 평면 모티프를 들여다 보는 것과 유사해보이기도 한다. 존스는 그의 작업에서 '본질적으로' 평면

138) 제임스 케힐, 위 책, 60.

〔작품도판12〕〈함께 너와 오늘 하늘을 담고 #1-3〉, 2021, 장지에 채색, 37.6x28.8cm

적인 국기, 숫자, 문자, 과녁과 같은 인공적인 이차원의 모티프를 다루고 이것은 '운명적으로' 평면성을 지닌다고 했다.[139] 〔참고도판 19〕과 같이 사물을 회화라는 평면 조형에 적용하는 그의 방식은 새삼 직관적이다. 실제 찻잔이라는 일상 사물 역시 3차원에 존재하는 입체 오브제이기 때문에, 나의 회화 작품 안에서 찻잔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평면적으로 회화적 변용을 이루지만, 이것은 나의 주도 아래 직접적인 평면적인 운명을 걸머지는 것이다. 나에게 평면적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나의 시각을 회화적으로 관철하고자 함이다.

대개 백토로 만들어지는 그릇은 어느 한 쪽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그 역할적 특징이 특히 왜곡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아이러니, 관점을 달리 했을 때에 주어지는 현 상황의 왜곡을 평면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모든 요건과 상황을 면밀하게 챙기

139) 이미영, 「평면적 이미지를 통한 회화공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00, 11, 재인용.

〔작품도판13〕〈실마리 #3〉, 2015, 장지에 채색, 70.0×70.0cm

〔작품도판14〕〈실마리 #4〉, 2015, 순지에 채색과 꼴라주, 35x47cm,

고 고려하여 큰 방향성을 생각하는 소위 '입체적인 시각'과 반대되는 것이자, 실제의 찻잔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자체가 어느 한 쪽에 부러 비껴 바라보는 것에 뜻을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의도된 시각을 통하여, 평면적 이미지의 찻잔은 기저의 주제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 새로이 거듭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상 사물로써 찻잔의 모습이 작품에서 똑 닮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편적이고도 평면적인 접근을 통하여 드러난 새로운 모습에서 주제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작품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시각이다. 즉, 이러한 평면적 이미지에 대한 접근은 나의 작품을 관통하는 아이러니이자 주제 표현 그 자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적인 찻잔의 이미지를 취하여 작품에 활용한다는 것은, 측면에서 바라보아 그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거나, 가득 담겨 넘친 것을 직접 볼 수 있게 하여 그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사람으로 치자면 외견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것은 소통의 목적과도 상동한다. 내색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심중을 내색하는 일은 매일 대하는 오늘을 부러 다시 바라보는 일과 별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평면적 이미지는 〔작품도판12〕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찻잔을 바라보는 단편적인 시각, 즉 평면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실제 존재하기 어려운 다소 극단적인 상황을 의도하고 그를 통하여 나에게 있어 오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스스로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작품도판13〕과 〔작품도판14〕처럼 아예 위에서 바라보아 찻잔의 역할의 왜곡을 더욱 크게 하여 마치 열쇠 구멍처럼 보이는 평면적 이미지를 통하여 찻잔의 외견이 아닌 내용 위주의 방향성도 의도해 보았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찻잔이라는 일상 기물을 평면적 시선에서 바라볼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게 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부러 찻잔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역할적인 부분을 왜곡시키고 아예 새로운 형상을 제시하여 오늘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데 특히 힘쓰고자 하였다.

회화라는 장르가 평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가시화 작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작품에서는 나의 생각이 엿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그 양상을 달리해온 작품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유롭게 그 갈래를 뻗었기 때문에 일견

복잡해보인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 의도와 주제를 전하기 위하여 사용된 조형적 특성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선하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정병모는 한국 전통 회화에 있어 평면적인 공간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상적으로 보이는 게 특색이라고 했다.[140] 나는 이와 같이 평면적으로 접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이미지를 혹은 대상을 찾으려 한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드러나는 평면성을 확대하는 것이자, 실제로 평면적인 시각과 소재의 사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였다. 이와 같은 평면적 이미지의 제시가 화면에 있어서 구도적으로 확대된 방식에 대하여는 2절의 **'종적 집적(集積) 이미지와 병렬구도'**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것은 내가 찻잔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미지를 도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응용하고 작업에 반영하는 것, 그 의도와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2. 종적 집적(集積) 이미지와 병렬구도

이 절에서는 화면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 요소 중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화면 구성의 측면에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구도[141]란 사전적으로 그림에서 모양, 색깔, 위치 따위의 짜임새를

---

140) 정병모,「책거리, 그 불가사의한 매력」, 《조선 궁중화·민화 걸작 문자도·책거리》, 예술의 전당, 2016, 239.

141) "구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4.30.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6

〔참고도판20〕 이응록, 〈책가도〉, 1864-1871 추정, 지본채색, 150x380cm, 개인소장.

이야기 하는 것이다. 실제 작업에 있어서 구도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흔히 표현하기를, 구도를 '잡는다'는 관용구를 사용하곤 한다. 이것은 그림에 있어서 구도라는 어떠한 짜임새를 만드는 것이 마치 날아가는 새를 애써 가두거나, 언제 사그러들지 모르는 영감(靈感)을 사로잡으려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느끼게 한다. 이것은 그림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일, 그리고 그림의 꼴이 어떤 모양을 취할 수 있는 지를 판가름 하는 것이 꽤나 예민하고 감각적인 일과 마찬가지라는 뜻일 것이다. 이에 부연하자면 고개지(顧愷之, 344-406)는 구도 문제를 논하며 "실제로 마주 대하여 보고 교묘하게 마름질해야 한다"[142]고 제시했다. 이것은 실제 구도를 성립하는 데 있어 화가에게 필요한 실력와 감각의 측면을 모두 함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구도란 언제나 중요한 일이고

280&searchKeywordTo=3

142) 갈로, 위 책, 93, 재인용.

〔작품도판15〕〈담다 #1〉,
2012, 장지에 채색,
162.2x130.3cm

〔작품도판16〕〈담다 #3〉,
2012, 장지에 채색,
162.2x130.3cm

그림의 전반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것이다.

나의 작업에 있어서, 점차 평면적인 찻잔 이미지를 대하는 방식은 단순히 이미지를 제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보내는 시간, 즉 첩첩이 쌓이는 시간 혹은 연이어지는 오늘을 반복적인 구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것은 규칙 없이 쌓여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장식장에 한칸씩 차지하고 들어 앉은, 잘 정리 된 책거리의 찻잔과 주전자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책거리의 종적 집적 구도에 대해서는 이규상(李奎象, 1728-1799)의 '화주록(畵廚錄)'에 다음과

〔작품도판17〕〈Rhythm&Vibe #1-4〉, 2019, 장지에 채색, 각 53x45.5cm.

같이 전하고 있다.

> 당시 화원(畵院)의 그림이 처음으로 서양 나라의 입체감 나는 사면척량(四面尺量) 화법을 본 떴는데, 그림이 이루어져 한쪽 눈을 감고 보면, 모든 기물이 가지런하게 서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세상에서는 이를 '책가(冊架)'라고 불렀다.[143]

과시적으로 책에 대한 사랑과 재물을 앞다투어 내어 보이는 목적성이 다분했던 책거리 그림의 회화적 공간 사용과 나의 작품에서의 종적 집적이면서도 병렬적인 구도의 사용은 서로 그 맥락이 유사하다. 특히나 2012년 경의 초기 작업은 찻잔은 가능한 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다. 이전에 내가 느낀 적 있던 '대기만성'이란 고

---

143) 當時院畵創倣西洋國之四面尺量畵法, 及畵之成, 瞬一目看之, 則凡物無不整立, 俗目之曰, 冊架.
박본수, 「책거리를 그린 조선시대 궁중의 화원들」, 『월간민화』, 2017.11.10.
http://artminhwa.com/책거리를-그린-조선시대-궁중의-화원들/

사의 불편함이 이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관통된다. 이때의 주된 내용은 나라는 사람의 삶의 그릇이 얼마나 완성 되었을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 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무수한 오늘을 찻잔에 담아 한 폭에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시간개념에 근거 한다. 특히 이 시기의 작품은 구도라는 조형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무척이나 가시적이고 직관적이었다. 종적으로는 가득 쌓아올리고, 횡적으로도 빼곡이 채워나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적 사용은 나의 작업에 있어서 단순히 찻잔의 수량을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다익선(多多益善)에서 시작하였던 작업이 점차 알맞은 양과 모양을 찾아나가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실제의 책꽂이를 올곧게 묘사하곤 하는 대개의 책거리[144] 주제의 그림들과 달리 나의 작품에서는 찻잔의 모양새가 꽤나 불안하게 쌓여 있다. 이것은 실제 찻잔으로는 있을 수 없는 구도에 대한 불편함일 수도 있고, 찻잔의 소재인 도자기는 미끄러지거나 하면 깨지거나 망가지기 쉬운 소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걱정이기도 하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제들어 점차 확실해지는 모양으로 연이어지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대표적인 시간개념 대한 표현이자, 사회적으로 미래라는 목적 의식에 현재를 불안하게 매몰시키는 현대인의 모습을 중의적으로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144) 조선 후기의 문인 유재건(劉在建, 1793-1880)이 지은《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내게 여러 첩의 문방도병풍(文房圖屛風)이 있는데 매양 방에 쳐놓으면 간혹 와서 보는 사람이 책들이 책꽂이에 가득 찼다고 여기다가, 가까이 와서 살펴보고는 웃었다. 그 정묘하고 핍진함이 이와 같았다."
박본수, 위 기사, 2017.11.10.

나는 애써 바르게 찻잔을 쌓으려는 생각보다는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의 찻잔이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형태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하게 조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양새는 드로잉을 반복하여 얻어내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을 바로 화폭에 옮겨 드러내고자 했다. 작업이 장기화 되면서 각각의 작품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주제나 내용이 세부적으로 분화함에 따라 조금씩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는 3절 '**선염**'에서 더 자세하게 논하고자 한다. 그것은 2012년도 경에는 하단에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심연이나, 수색(水色)이 어두운 차나 커피의 모양새처럼 그림에 불안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용되던 선염법이 본격적으로 그림 전반에 출연하며 구도와 내용에 있어 두드러진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모든 작품과 그에 따른 과정은 결국 '찻잔에 담긴 오늘' 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연구이다.

3. 선염

선염[145]이란 동양화에서, 화면에 물을 칠하여 마르기 전에

145) "선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1.04.30.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C%84%A0%EC%97%BC#none

〔작품도판18〕〈Today〉,
2019, 장지에 채색,
30x9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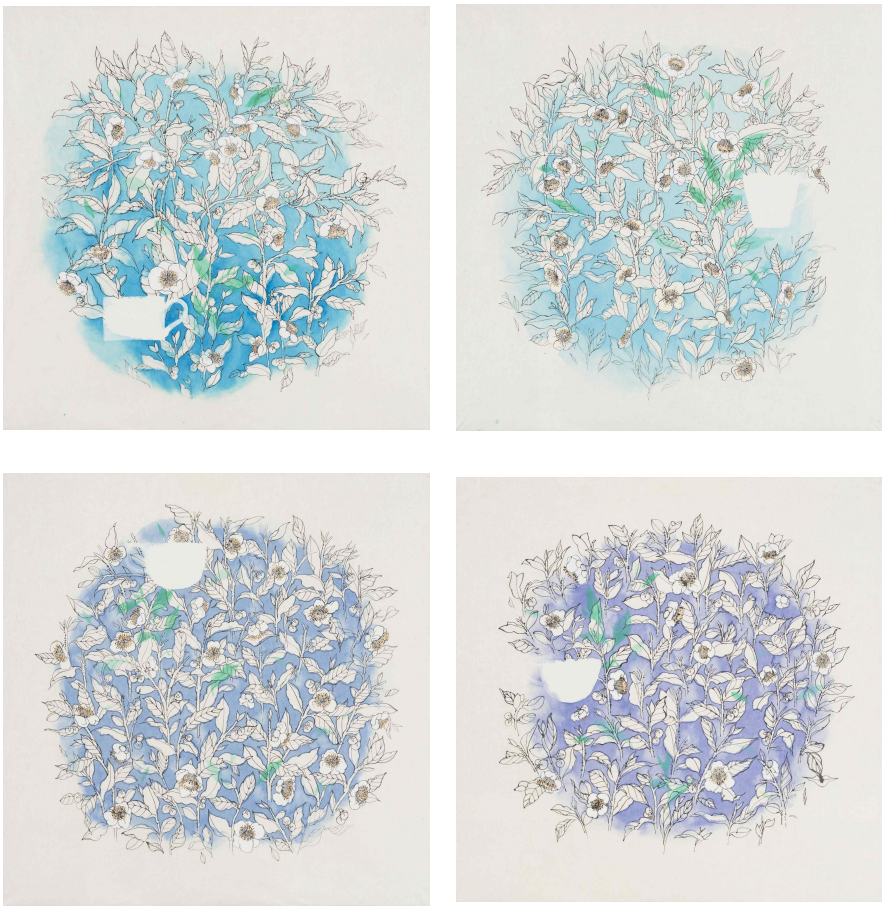
붓을 대어 몽롱하고 침중한 묘미를 나타내는 기법을 말한다. 종이를 활용한 채색 기법을 위주로 작업에 임하는 나에게 선염은 색다른 기법적인 사용이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물에 푹 젖은 종이 위에 안료나 먹이 번지는 것은 우연에 의해 그 효과가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이 때 특히 유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종이에 물을 뿌리고 안료를 풀어 얹으면 자유롭게 그 영역이 퍼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손대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선염을 노리면서도 아예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안료가 번지거나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여백으로 남기고자 하는 부분을 주의하며 물감을 얹는다. 여백은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해내거나 작가의 사상이나 의식, 의지 등을 반영하며, 상상력을 주고, 그 상상력은 화면을 확대 시키거나 축소 해석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146]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화폭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번질지, 그리고 원하는 효과를 위해서는 물이나 물감의 양은 어느 정도 조절되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계산하긴 어렵지만 가장 공들여 고려한다. 그렇지만 우연의 효과를 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감을 젖은 종이 위에 차차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맘에 드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 생각 외의 것이 나오기도 한다. 나의 작품에서는 선염 작업은 그림의 전반적인 인상이나 뉘앙스를 표현하는 조형언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에서 다른 어떤 작업 보다 가장 먼저 종이 위에 올라가는 첫번째 작업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선염 기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찻물 그리고 이를 통한 나의 오늘이다. 특히 차가 우려지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적인 시간의 이미지화를 통해서 나의 시간, 즉 오늘을

146) 김병종, 중국회화연구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94.

〔작품도판19〕〈시선 끝의 실마리 #1-2〉, 2018,
장지에 채색, 각 30x4cm.

표현 하고자 하였다. 〔작품도판14〕를 보면 찻잔 아래가 보이지않는 것처럼,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가득 담긴 찻물의 이미지가 먹의 선염으로 표현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나라는 사람의 찻잔 속 그 내용물이 아득한 깊이로 가득 담겨 있음을 암시하는 장치로써 사용되었다. 이것은 찻잔을 오늘의 나의 그릇으로 대하는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자 그림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효과를 동반한다. 초기의 작업에서 내용물에 대한 의구심이나 화려한 찻잔의 외면에 집중하는 내용 역시 엿보이기 때문에, 이 때의 찻물은 무척이나 검고 깊고 어두워 그 끝을 알 수 없이 가득 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찻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이후의 '실마리' 연작이 자연스레 연결되었으나, 곧 나의 찻잔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점차 '나의 오늘'로 차차 그 메세지를 정리하여 나감에 따라 점차 찻잔 속 찻물에 명확한 색조가 엿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색조로써의 선염 이미지는 〔작품도판19〕와 같이 찻잔 안에 담긴 찻물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화판 전체에 고르게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닌, 종이와 맞닿는 윗면께에 특히 선염법을 사용하여 색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실제 컵 안에 차가 담긴 것 같은 모양새를 중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초기 작품에 똑 떨어지는 면적 안에서 이루어진 선염의 모양새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까닭은 오히려 이러한 오묘한 경계를 통하여 감상자에게 실제의 정확한 면적을 제시하지 않고자 하는데 있었다. 각자 작품을 보고 느끼는 바에 따라 사각형의 작품이 마치 실린더 형태의 컵처럼 느껴질 때, 찻물의 양이 가득 차 보이기도 하고 알맞게 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등 상상할 만한 여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시는 선염법으로 찻잔에 담긴 오늘에 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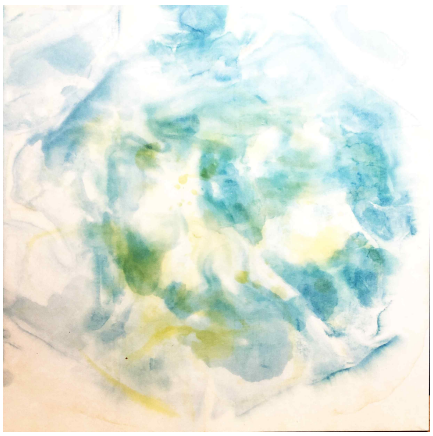


〔작품도판20〕〈A Cup of Tea Garden #1-4〉, 2019,
순지에 채색, 70.0×70.0cm

〔참고도판21〕 홍차의 포기크랙(Foggy Crack)

여 찻물의 이미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냈던 실제 작품의 예이다.

가끔 삶이라는 길다란 시간의 흐름에서 오늘의 위치를 곰곰 생각해 볼 때, 마치 하나의 작은 점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차를 마시는 시간 역시 오늘에 있어 마치 작은 점처럼 느껴지는 순간의 행위이다. 그리고 동그란 잔 안의 찻물은 가끔은 정적인 수면과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들여다보는 컵 안의 모양새와 같다.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최근의 작업에서는 선염의 영역이 둥그스름한 외딴 연못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품도판20〕의 연작 에서는 특히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선염은 앞의 작품들과 달리 특히 농담의 표현이 사이사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실제 차를 마시며 종종 접하는 포기크랙(foggy crack)이라는 현상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 포기크랙은 뜨거운 차의 대류현상이 찻물의 표면이 갈



〔참고도판22〕〈오늘담다〉,
2019, 장지에 채색,
70x70cm,
선염 작업 과정.

〔작품도판21〕〈오늘담다〉,
2019, 장지에 채색,
70x70cm.

라지듯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147] 그동안 깊은 물 혹은 담겨 있는 무언가와 같이 다소 관념적이었던 찻물에 대한 선염 이미지가 실제의 현상과 나의 경험으로 서로 합일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찻잔의 외견을 그리는 일에서 벗어나는 주요한 계기가 되어 주기도 하였다. 마치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외견적 특징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게 한다는 것과 과연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찻잔의 외형만을 제시하고 그 안의 내용물에 대하여 제시 하지 않

147) 박정동, 『나는 왜 홍차에 열광하는가?』(서울:티움, 2011), 44.

는 것은 일견 무책임하게까지 느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양새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선염에 색이 생기는 것을 시작으로 종래에 선염의 표현 자체를 점차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게 되는 것에까지 미친다. 이러한 선염의 모습은 〔참고도판 22〕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선염 표현은 곧 〔작품도판21〕로 완성되었다. 선염이란 물과 안료의 자유로운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니 만큼, 무형의 오늘이라는 시간 관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종래에 선염에서 비롯한 색과 표현을 시작으로 점차 또렷한 식물적 이미지로 나의 경험을 녹여내는 작품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지게끔 하였다.

나의 작업에 있어서 선염이란 특히 그림이 클수록 거의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붓을 사용하여 그 결을 정리하는 등 다소 몸을 크게 움직이는 과정이 수반된다. 연하게 색을 얹고 여전히 젖어 있는 그 위에 추가적으로 색을 올릴 때는 마치 파묵법(破墨法)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나의 조형 언어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서 나의 작업은 행동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입체적인 지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외부에 머물던 시선을 내부로 가져오고, 실제의 경험과 삶의 오늘을 녹여내는 주요한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는 긴 시간 동안 방향성은 확실했었으나 그 구체적인 언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적합한 단어와 내용을 찾아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계속해서 예민하고 기민하게 앞으로 나의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과 발 맞추어 나의 작업에 꾸준히 몰두해 나가고자 한다. 심세중은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 1891 ~ 1977)의 그림에 부연하기를 '삶과 예술은 경쟁하

〔참고도판23〕 선염 기법 활용의 예시

지 않는다[148]'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연구를 통해 깨달은, 내가 오늘 작업을 대하며 가져야 할 실로 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다. 이를 토대로 다음 장 '**맺음말**'에서는 이번 연구를 정리하며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148) 심세중, 『의재 허백련,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서울:디자인하우스, 2001), 182.

Ⅴ. 맺음말

이번 연구는 학부 재학 시절부터 현재까지 제작된 나의 작품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기반으로, 표현을 위한 소재 그리고 기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흔히 우리의 생활과 관련한 시간개념을 일상이라 말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 이것은 꽤나 두루뭉술한 단어 선택일 수 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의 사람들은 시간을 작거나 무수히 많은 단위로 인식할 뿐이라, 어제의 계획이 먼저 앞서는 때에 오늘은 곧잘 사라지곤 한다. 나는 현대인들이 쉬이 흘려보내는 오늘이라는 시간개념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오늘의 의미를 성찰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오늘이라는 시간개념에 대하여 다시 정의 하는 것은 단순히 수학적 단위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만연한 결과 중심적 시각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접근하고, 본질적 의미를 찾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는 바쁘고 빠른 흐름의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보내는 시간,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감각하는 시간으로 거듭 날 수 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오늘은 두 가지 의미의 시간개념으로 접근 하고자 하였다. 그 첫 번째는 ‘주체적인 시간으로서의 오늘’이다. 먼

저, 대개 삶으로 일컬어지는 거대한 시간이라는 덩어리는 오늘을 통하여 내가 관여할 수 있는 '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개념을 인식 하는 것이, 나에 대한 주체성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대인의 바쁜 삶에 그들의 목표나 성과 혹은 사회적으로 학습된 역할에 대한 부담이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일을 하는 것 보다 돈을 버는 것,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현대 사회에서 '나'라는 주체에 대하여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오늘 나는 어떠한 태도로 이 시간을 대해야 하는지 이번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두 번째는 '가능성의 시간으로서의 오늘'이다. 이것은 앞서 분석한 오늘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까닭을 바탕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로서의 잠재력을 분석한다. 흔히 현대인의 시간개념이란 돌이킬 수 없는 책임감의 시간대인 어제와 일정과 계획으로 넘겨 짚어지는 내일,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오늘이 있다. 유일하게 당장 행동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오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늘이 사회적인 불안과 무기력에 의하여 어제 세운 계획으로 가득 채우고야 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것은 가까이는 막연한 불안감과 목적 의식에 가려진 오늘의 나의 가능성에 대해 깨닫게 하는 것은 물론, 멀리는 사회적으로 오늘이라는 전환점에 대하여 담론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흔히 일상이라는 시간개념으로 기존의 문화·철학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나는 오늘에 대입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를 계승하면서도 현시대에 좀 더 공감 가능한 지점을 새로이 확인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주제 의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는 찻잔이

라는 소재를 매개체로 삼았다. 흔히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곤 하는 고사를 차용한 것이다. 이것은 노자의 『도덕경』의 대기만성론에 근거한다. 그릇이라는 소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흔히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나 역할에 대하여 눈 감고도 그릴 만큼 누구나 뻔히 잘 알고 있다. 평균적인 사이즈와 대중적인 모양새로 저마다의 식사 시간에 흔히 함께 하는 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 진다고 말 하는 것은 간혹 진심 없는 응원에 불과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매일의 삼시세끼에 사용되는 그릇의 역할이 마치 현대 사회에서 계속 일만 하는 현대인들 마냥 치열하기 그지 없어 보인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찻잔에 주목 한다. 돈을 벌거나 남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흔히 휴식을 의미하는 찻잔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로써 역할하는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과 소재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조형 언어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면적 이미지'의 활용이다. 이것은 그릇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의 아이러니에서 기인한다. 그릇에 무언가 담겨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차 있는지, 시각에 따라 그 것을 알 수 없게 하는 데에 평면적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대기만성의 고사나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의 역설을 꿰뚫고자 함이다.[149] 이것은 기존의 회화 작품에 사용된 평면적 이미지와 비교 하여 어떠한 차이

149) 겉보기에는 기술적 진보가 우리에게서 많은 수고를 덜어주었으니 시간도 여유로워졌을 것 같다. 그러나 현대의 가속화 과정은 묘한 역설을 낳아놓았다. "기술적 도구들의 도움으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혹은 바로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점점 더 시간이 모자란다." 철학자 크리스티안 드리에스의 말이다.
프랑크 베르츠바흐, 위 책, 226-227, 재인용.

를 발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는지도 함께 연구하였다. 두 번째 특성은 '종적 집적(集積) 이미지와 병렬구도'이다. 이것은 앞서 연구한 평면적 시각에서 비롯한 이미지가 확대되는 방향성이다. 연작으로 진행된 작품의 특성상 나의 작품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이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단위를 뜻하지만, 그 끝과 시작은 매일 연이어져 불분명하게 이어져 있다. 나는 이러한 특성을 블록을 켜켜이 쌓듯 집적된 찻잔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세 번째 특성인 '선염'을 활용하여 오늘의 시간성을 회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것은 찻잔과 오늘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표현이자, 동양화적 회화적 미감 또한 포괄한다.

오늘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는 연구자로서, 나의 오늘이라고 여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바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더라도 바로 당장 오늘이 맑게 개는 듯 그 얼굴을 달리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오늘에 대하여 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이며 소소한 단위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은 하루이틀 그 몸집을 서서히 불리며 곧 삶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위해 오늘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오늘은 무엇보다 현재의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는 지표이자, 매일 다시 주어지는 시작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리쬐는 햇살의 빛깔이 어떠했는지, 길가의 들풀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불어오던 봄바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역체감은 할지 언정 먼저 내게 주어진 오늘을 관심있게 들여다보려는 행동조차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이 소중한

결론에 대하여 언제나 예민하게 파악하고 고민하며 나의 오늘 그리고 작품에 임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오늘도 오롯히 마주해 볼 수 있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강영안, 『일상의 철학』, 서울:세창출판사, 2018.

김병종, 『중국회화연구』,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김정봉, 『노자의 노덕경』, 장수: 내일을여는책, 2018.

김재휘, 『광고심리학』,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문광훈, 『예술과 나날의 마음』, 서울:한길사, 2020.

문광훈, 『미학수업』,서울:흐름출판, 2019.

박정동, 『나는 왜 홍차에 열광하는가?』, 서울:티움, 2011.

심보선, 『슬픔이 없는 십오 초』, 서울:문학과 지성사, 2008.

심세중, 『의재 허백련,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 서울:디자인하우스, 2001.

양승국, 『일상성의 미학에 이르는길』, 서울:박이정출판사, 2019.

이창우, 『시간은 흐르는가』서울:생각나눔, 2020.

임주완, 『노자 신주석서』, 서울: 지식공감, 2021.

정병모, 『한국의 채색화 2』 , 서울:다할미디어, 2015.

정혜린, 『추사 김정희의 예술론』, 성남:신구문화사, 2008.

탄호, 『선으로 바라본 석도의 '화어록' 연구』, 서울:북랩, 2018.

하동석,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적학 용어사전』, 서울:새정보미디어, 2019.

베르츠바흐, 프랑크.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정지인 역, 서울:불광출판사, 2016.

비에리, 페터, 『자기 결정』, 문항심 역, 서울:은행나무, 2015.

보르헤스, 『픽션들』, 황병하 역, 서울:민음사, 1994.

케힐, 제임스. 『중국회화사』, 조선미 역, 서울:열화당, 2002.

단토, 아서. 『일상적인 것의 변용』, 김혜린 역, 서울:한길사,

2008.
피츠제럴드, 스콧, 『위대한 개츠비』, 김연희 역, 서울:하서출판사, 2002.
토케이어, 마빈, 『탈무드』, 김연희 역, 서울:하서, 2002.
도쿄 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안도 다다오 연구실, 『건축가들의 20대』, 신미원 역 서울:눌와, 2008.
프랑스, 아나톨. 『펭귄의 섬』 김우영 역, 서울:다른우리, 2008.
갈로, 『중국회화이론사』. 강관식 역, 서울:돌베개, 2010.
헹크만, 볼프하르트. 『미학사전』, 김진수 역, 서울:예경, 1998.
헤겔, 『정신현상학』, 강성화 역, 서울: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홍자성, 『채근담』, 윤미길 역, 서울:하서, 1999.
르페브르, 앙리,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서울:기파랑, 2005.
르페브르, 앙리, 『리듬분석』, 정기헌 역, 서울:갈무리, 2013.
노자, 『노자 노덕경과 왕필의 주』, 김학목 역, 서울:홍익출판사, 2012.
노자, 『The Tao The King』, James Legge 역, 경기도:북크크, 2018.
유검화, 『중국고대화론유편 제1편:범론3』, 김대원 역, 서울:소명출판, 2010.
임어당, 『생활의 발견』, 류해인 역, 서울:하서출판사, 2001.
마르텔라, 프랑크, 『무의미한 날들을 위한 철학』, 성원 역, 서울:어크로스, 2021.
모네오, 라파엘. 『8인의 현대 건축가』 이영범, 정태용, 이상현, 임기택 역, 서울:공간사, 2008.
뉴먼, 밀드레드, 『나에게 이르는 길』 이영희 역, 서울:도서출판대성, 1992.
니체, 프리드리히, 『즐거운 학문』, 안성찬 역, 서울:책세상,

2005.
샌델, 마이클.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서울:김영사, 2010.
톨스토이, 레프,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이상원 역, 서울:조화로운삶, 2007.
위지안,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이현아 역, 일산:위즈덤하우스, 2000.

학위논문

김수진, 「일상적 사물을 통한 일상성 표현 연구」, 2009.
김혜자, 「한국의 기명절지화에 관한 연구」, 2005.
김희수, 「원근법을 이용한 시간과 공간의 형상들」, 2005.
방지영, 「사진매체를 활용한 시간성 표현 연구」, 2020.
안성하, 「일상이미지의 재현을 통한 兩價感 표출에 관한 연구」, 2003.
우정이, 「일상에 대한 관조 : 본인 작품 중심으로」, 2020.
육혜림, 「장승업 회화에 나타난 器皿折枝畵 연구」, 2013.
이미영, 「평면적 이미지를 통한 회화공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00.
원형준, 「시간의식에 대한 철학적 고찰」, 2010.

학술논고와 전시평론

공예슬, 《Personal Life》, 에브리데이몬데이 갤러리, 2021.
김다운, 「미리보는 전시, 《오늘담다》」, 『월간 전시가이드』 163, 서울:월간크라트 , 2019.
김정희, 《갤러리 시선 2인 공모전 (EXHIBIION -

No.21-02-27)》, GS건설 갤러리 시선, 2021.
김부귀, 「고려 다기(茶器)에 관한(寬限) 연구(硏究) -다완(茶碗)과 다주자(茶注子)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39권, 2007.
김인혜, 「한·일 차인(茶人)의 특징 비교 - 차구(茶具)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일본연구 제 59호, 2014.
김화자, 박신화, 전영백, 주성호, 최재식, 한의정, 한정선, 신인섭, 『메를로퐁티 현상학과 예술세계』, 서울: 그린비, 2020.
박래현, 《박래현, 삼중통역자》,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20.
박숙희, 「高麗 茶詩에 나타난 脫俗과 養生의 美學」, 2010.
반기성, 「날씨는 삶이다」,《날씨의 맛》, 서울 시립 미술관, 2018.
이자혜, 최종한, 태지호, 서원태, 박홍열, 박동애, 강승묵, 『영상아포리아』, 파주:한울아카데미, 2019.
이중희, 「일본 우키요에의 세계② 대중의 낙천적 에너지를 담다」, 『월간 민화』28, 서울:디자인밈, 2016.
유성준, 「척약재 김구용의 (金九容) 생애와 시 (詩)」, 1980,
전승용, 《유고군산군도(遊古群山群島)》, 한원미술관, 2020.
정병모,「책거리, 그 불가사의한 매력」, 《조선 궁중화·민화 걸작 문자도·책거리》, 예술의 전당, 2016.

기시 후미카츠(岸文和), 「길상 도상학」, 『한국의 채색화 2』, 서울:다할미디어, 2015.

웹사이트

고연희, 「〔문화〕 고연희의 옛 그림 속 인물에 말을 걸다 (12) 공민왕 전칭작 '위기도'」, 『문화일보』, 2013.01.2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12501033130242002

김민재, 「더이상 ′N포세대′ 없다…정부, ′청년 희망패키지′ 추진」, 『노컷뉴스』, 2020.09.01,
https://www.nocutnews.co.kr/news/5404275
김태언, 「금속활자, 자동물시계 부품… 땅속서 나온 '조선의 과학'」, 『동아일보』, 2021.06.30.
박본수, 「책거리를 그린 조선시대 궁중의 화원들」, 『월간민화』, 2017.11.10.
http://artminhwa.com/책거리를-그린-조선시대-궁중의-화원들
정인선, 「'커피 한잔 예술 한잔'...탐앤탐스 '갤러리탐' 전시 오픈」, 『천지일보』, 2019.01.23.
최성민, 「다다익선(茶茶益善)」, 『한겨레』, 2004.04.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0054975

작 품 집

〈담다 #1〉, 2012, 장지에 채색, 162.2x130.3cm

〈담다 #3〉, 2012, 장지에 채색, 162.2x130.3cm

〈담다 #2〉, 2012, 순지에 채색,
각 162.2x130.3cm, (총 2점).

〈담다#4〉, 2014,
순지에 채색, 70x70cm.

〈오늘, 일상 속 실마리 #1-3〉, 2015, 장지에 채색, 각 32x41cm.

〈실마리 #1-2〉, 2015, 장지에 채색, 각 70.0×70.0cm

〈실마리 #3〉,
2014, 순지에 채색
73x92cm,

〈실마리 #4〉, 2015, 순지에
채색과 꼴라주, 35x47cm,

〈시선 끝의 실마리 #1-2〉, 2018, 장지에 채색,
각 72.7x60.6cm.

〈여름의 시선 #1-2〉, 2019, 장지에 채색, 각 38x45cm

〈담다;시선 #1-2〉, 2018, 장지에 채색, 각 45x30cm

〈함께 너와 오늘 하늘을 담고 #1-3〉, 2021,
장지에 채색, 각 37.6x28.8cm

〈사계;봄〉, 2019, 장지에 채색, 각 27.3x22cm

〈사계;여름〉, 2019, 장지에 채색, 각 27.3x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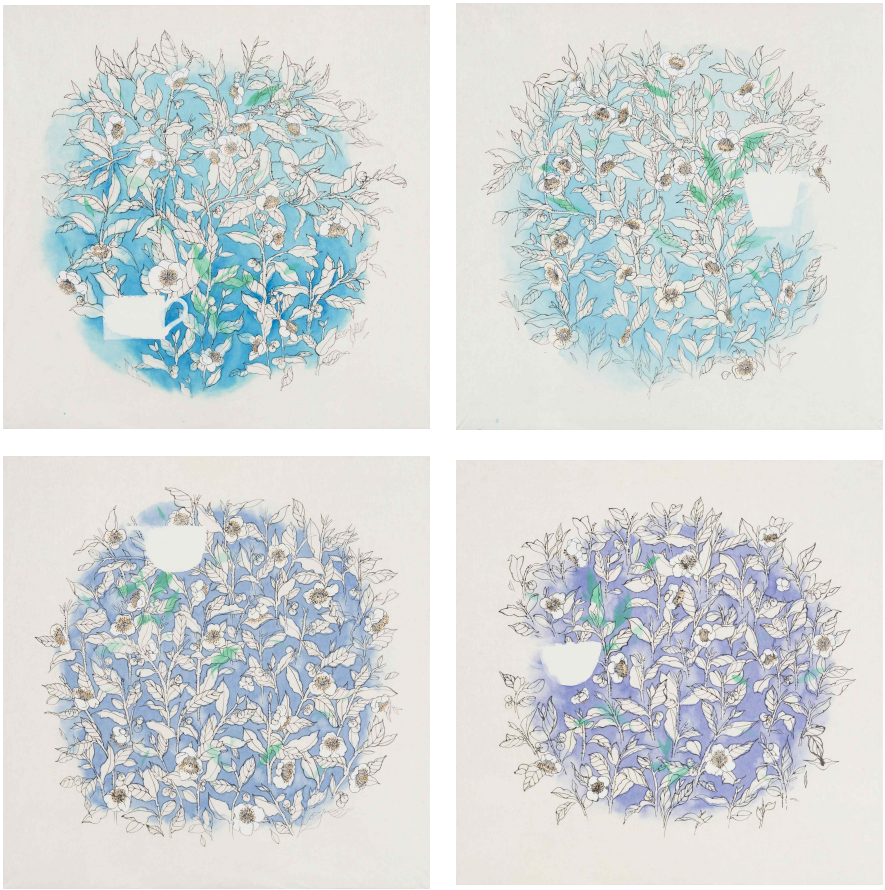
〈사계;가을〉, 2019, 장지에 채색, 각 27.3x22cm

〈사계;겨울〉, 2019, 장지에 채색, 각 27.3x22cm

〈Gardening #2〉, 2019, 순지에 채색, 27.3x22cm

〈초여름〉, 2019, 장지에 채색, 각 20x20cm

〈A Cup of Tea〉 2019, 장지에 채색,
10x20cm



〈A Cup of Tea Garden 4〉, 2019,
순지에 채색, 70.0×7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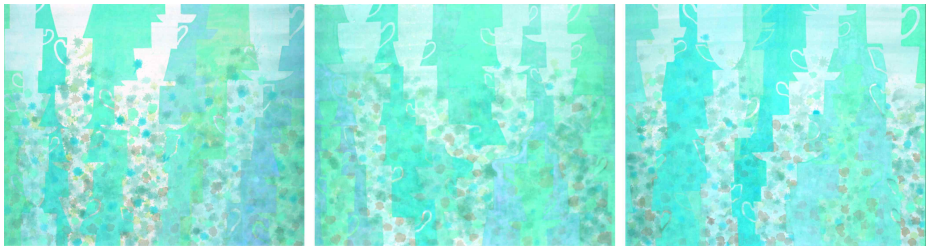
〈봄 옷자락에 여름 바람이 스칠 때 #1-4〉, 2020,
장지에 채색, 각 116.8x91.0cm

〈A Cup of Oasis #1-6〉, 2021,
장지에 채색, 각 90.9x72.7cm

〈오늘 한낮의 햇볕은 마치 여름날 같아서 #1-2〉, 2021,
장지에 채색, 각 91.0x116.8cm

〈Come to the Garden in Spring #1-2〉, 2020,
장지에 채색, 각 91.0x91.0cm

〈Way to Tea Garden #1-2〉 2021.
장지에 채색, 130.3x130.3cm, 130.3x162.2cm



〈A Cup of Tea Garden #1-3〉, 2019.
장지에 채색, 각 1000x80.3cm

〈Rhythm&Vibe #1-4〉, 2019, 장지에 채색,
각 53x45.5cm

〈담다 #5〉, 2015, 장지에 채색, 193x130cm

〈담다 #6〉, 2015, 장지에 채색, 130x130cm

〈홍차〉, 2018, 장지에 채색, 130.3x97.0cm

〈녹차〉, 2018, 장지에 채색, 130.3x97.0cm

〈From Monday to Sunday〉, 2019, 장지에 채색, 각 30×90cm (총 7점), 《오늘담다》 전시전경.

〈오늘담다〉, 2019.
장지에 채색, 70x70cm.

〈Red Tea〉, 2019.
장지에 채색, 163x130cm.

〈찻물그림자 #1〉, 2019, 장지에 채색, 50x20cm

〈찻물그림자 #2〉, 2019, 장지에 채색, 40x30cm

〈봄 향기 피어나는 花요일 #1-2〉, 2021, 장지에 채색,
각 40x30cm

Abstract

A Study on the Experession about the Meaning of Today through Teacups.

-Based on My Artworks-

Kim, Dawoon

Oriental Painting Dept.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organize and analyze my work from my undergraduate years to now. This is based on the theme consciousness about meaning of today that including the material and techniques for the representation of my paintings since 2012. Although the concept of time associated with our lives is often referred to as daily life, this can actually be quite a vague choice of word. People in a busy modern society only perceive time as a guideline for a living, so today often disappears when yesterday's plan is ahead.

I want to analyze the concept of time about

present that modern people easily spend to achieve own goals for tomorrow so reflect the meaning of 'today' on this study. This is because of the atmosphere in modern society, where it seems more important to be a proper member of social community than to do one's duty so I am trying to evoke the subject, myself. Among the other units of time, especially redefining the concept of today does not just make me aware of the mathematical results, but also allows me to understand the precise present time also the space surrounding me. This is a metaphorical approach to the view of the purpose driven life in modern society to find the essential meaning and to visualize it.

In Chapter Ⅰ. based on the sense of motivation, introduce the basis of the study's purpose and contents that led us to pay attention to today's meaning.

In Chapter Ⅱ. beginning with the main poin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meaning and concept of today. The first section is 'Concept of Today', through the advent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time, it is a part of revealing the importance of today and how today is perceived in modern society and how it plays a social role. The second section is 'Meaning of Today', through today's concept of time could suggest each of the values are summarized in two ways. The first is 'Today as a time of subjectivity'. It means recognizing the present concept of today can be the beginning of restoring my identity to myself. This is based on the view that today is not just a passing time, but a time that I act and

sense independently. The second is 'Today as a time of possibility". This is about today's potential and the process of discovering it. This involved research and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and cases from art history to philosophy.

In Chapter Ⅲ, it's a part of expressing the two meanings of today that recognized above through the teacups in my painting. Especially Laozi(老子)'s '*The Tao Teh King(道德經)*', there is a sentence about a Tao[150]. It was a major trigger to choose teacups as a painting material mainly. Indeed in my paintings, to discuss how teacups play two kinds of roles above, as a suitable material for conveying the meaning of today, the experiences of my works and exhibitions were composed together in this chapter.

In Chapter Ⅳ,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formative features in my paintings about meaning of today. To deal with the meaning into paintings, in terms of expression techniques present below : presentation of planar images, longitudinal compositions and dyeing skills. The method of each technique being used was confirmed through the paintings.

In Chapter Ⅴ, as the last part of this study, in

---

150) Its largest square doth yet no corner show
A vessel great, it is slowest made;
Loud is its sound, but never word it said;
A semblance great, the shadow of a shade.
Laozi(老子), 『The Tao The King(道德經)』, translated James Legge(Gyeonggi-do:Bookk, 2018), 60.

this part I summarized the main points and described my paintings. To combine my own ideas and materials, this study supposed to examine my overall work, and to know the direction to go forward.

Keywords: Modern society, today, concept of time, teacups, painting
Student Number: 2019-25630.